



윤석열 대통령,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 주재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기득권 세력의 부당이득을 낚낱이 걷어낼 계획



윤석열 대통령은 7월 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등 18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등이 참석하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금년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한때 6%를 넘던 물가를 2%대로 끌어내리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

자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조치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등 다수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 부처 장관들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

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을 보고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경기, 금융·부동산 시장, 물가, 고용 등 최근 경제 여건과 향후 전망을 브리핑하고,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성과 창출을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중장기 경제정책 과제를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먼저 국민경제자문



산림청,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2023, 광릉숲에서 개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생물다양성 탐사 기회

회의 부의장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주제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투자 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에 관해 논의했다. 또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사회부처 장관 등을 중심으로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에 관해 토론했다.

오늘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회의에서의 토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의 후속 조치를 수시로 점검하고 엄정히 평가하는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는 제도, 규제를 적극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통해 이익과 권리를 얻기보다는 카르텔을 구축하여 이권을 나누는 구조를 철저히 타파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체제,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 나눠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이득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낚낱이 걷어낼 방침이다.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우리 국민의 삶 곳곳에 퍼지고 온기가 채워지도록 더욱 힘을 기울입니다. 경제 회복의 훈풍이 지역경제에까지 확실히 불도록 지역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는 한편, 역전세,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험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

오늘 논의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각 부문별로 마련한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최광수/기자



경북도, 지역과 상생하는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평생교육 컨퍼런스 열고 평생학습 노하우 공유



경북도는 5일 경산 아트리움 컨벤션센터에서 경상북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회장 김용재) 주관으로 기관·단체장과 시군 평생교육지도자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경상북도 평생교육지도자 협의회 평생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평생교육 컨퍼런스는 지역 현장에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평생교육지도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군 간 교류를 통해 네

트워크를 강화해 효과적인 평생학습 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변화의 시작! 경상북도 평생교육, 평생교육지도자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시군 협의회 평생교육 부스 운영(10개 시군) △평생학습 동아리 공연(화관무, 에어로빅댄스) △마을 평생교육 유공자 시상식 △마을 평생교육 활동사례 발표 △한세대학교 안중배 교수의 ‘셋 GPT 인공지능 특성과 평생교육 활용 방안’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평생교육 저변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마을 평생교육 유공자 16명에게 도지사 표창(6명)과 도 교육감상(6명), 도의회 의장상(4명)을 수여했다.

경산시협의회와 의성군협의회에서는 마을 평생교육 활동사례를 대표로 발표했다. 경산시는 “경산시 평생교육은 우리기!”라는 주제로 건강한 뇌 만들기 사랑방, 자인단오제와 버스킹, 경산시 재능 나눔 박람회를 활동사례로 소개했다.

의성군은 “평생교육이라고 쓰고 배움의 시


간이라고 읽습니다!”라는 주제로 경로당 한글교실, 문해강사 스터디 등 문해교육사업을 중심으로 성과와 노하우를 소개했다.

안중배 교수의 특강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주고 있는 인공지능(AI)과 관련해 셋 GPT-4 인공지능 특성에 대한 설명과 평생교육 분야에서의 활용 방안 및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편, 경상북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는 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을 통해 연간 400여 명의 평생교육지도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22개 시군, 2천936명의 회원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과장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사회변동성이 커지고 습득해야 할 지식과 정보의 양이 폭증함에 따라 삶과 학습을 하나로 이어주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평생교육 현장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지도자 여러분께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안동시
CHANGE & INNOVATION
2023 안동시 승격 50주년

한국의 미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안동




안동! 유네스코 세계유산 3대 카테고리 보유 최초 도시


2010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마을'



2015년 10월 세계기록유산
한국의 '유교책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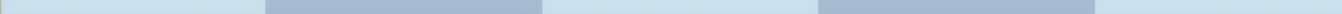


2018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산지승원 '봉정사'



2019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도산서원'

2022년 11월 인류무형문화유산
한국의 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전남도, 동물과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농식품부 '동물복지 교육 지원사업' 2개 분야 모두 선정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전국 8개소 중 최다인 2개 동물복지 교육 프로그램이 선정돼 동물과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동물복지 인식을 높이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입양 전 교육'과 '길고양이 보호관리 교육', 2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입양 전 교육'은 동물보호센터 내 유기 동물

입양 전 필요한 준비사항,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생애주기 관리, 건강 및 행동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남도, 경기도, 전북도 등 전국 3개소가 선정됐다.

'길고양이 보호관리 교육'에는 전남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5개소가 선정됐다. 길고양이 개체 수 관리를 위한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과 고양이 생태습성 및 올바른 길고양이 돌봄 방법 등 교육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교육 프로그램은 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순천 조곡동에 있는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광주전남 최초의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으로 7월 말 개관을 앞두고 임시 운영 중이다. 임시 운영 기간에 견 사육실·실내 놀이터를 개방하고 반려동물 산책 교실 외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반려인 1천 500만 시대를 맞아 올바른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김종수 경북도의회 사무처장 취임, 업무보고회 등 광폭 행보

탁월한 기획력·업무 추진력을 겸비한 행정력으로 의정활동 지원

김종수(55, 사진) 전 자치행정국장 이 지난 1일자로 승진, 경북도의회 사무처장으로 취임하자마자 현안 업무 보고회를 열어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언론사 외 주요기관을 방문하는 등 광폭 행보를 펼쳤다.

신임 김종수 사무처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경북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학위를 마쳤으며, 지난 1997년 제33회 국가기술고등고시와 제3회 지방고등고시를 동시에 합격해 1998년에 사무관으로 임용돼 의성군 신평면장을 시작으로 경상북도 FTA농축산대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재)문화엑스포 행사기획실장, 영천시 부시장 거쳐 경상북도 대변인, 복지건강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농축산유통국장, 자치행정국장 등을 역임했다. 영천 부시장 재임 시에는 자원봉사

평가 우수시 선정, 자렛츠런 파크 사업 추진 본격 시동, '투자유치 대상' 3년 연속 우수 등 뛰어난 업무역량을 발휘했으며, 경산지식산업지구의 성공적인 안착과 경산 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부단 체감으로서의 탁월한 역량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농축산유통국장 재임시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농축산물을 판매해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경북 도내 농업인은 7천277명으로 2015년 이후 4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신농업인 육성·농식품 유통혁신으로 농업혁명 이끌었고, 농업분야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경북도의 굵직한 정책사업과 '농업대전환으로 농업현장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하고 스마

트팜 주요기반 조성'과 '농축산유통분야 예산 1조원 규모 개척'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2022년에는 대통령 훈조 근정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자치행정국장 재임시에는 새벽 공부 '화공'을 통해 경북의 힘과 혁신도정 변화의 바람 불어 넣으며, 도청 조직내부 직원들과의 친밀한 스킨십과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큰 관심을 가져, 추진력과 세심함을 동시에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다.

김종수 사무처장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분권 확대 등 의회 전문성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며,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60명의 도의원을 잘 보좌하여 집행부와 협치, 주민참여 확대 등 소통



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실현에 역할을 다 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직원들에게는 도민을 위해 큰 틀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능동적인 의회 공무원으로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 활성화를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충남도의회 민간위탁사무조사특위, 복지보건국 소관 보고 청취

제7차 회의 개최... 위탁기관 선정절차 체계화·민간위탁 점진 정례화 등 요구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4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소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 받았다.

양경도 위원장(천안11·국민의힘)은 "이번 특위는 충청남도 전체의 민간위탁사무를 일시에 점검하여 위탁사무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도민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세금의 운영을 철저히 점검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오늘로 점검결과 보고는 종료되지만 향후에도 회의나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민간위탁사무 점검 결과보고서와 관련 "민간위탁사무의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파악하기에 결과보고서 내용에 빠진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후, 추후 민간위탁사무의 장·단점, 인력의 필요성, 예산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형식을 변경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제안했다.

또한 충남의 복지환경 제고를 위해 "각 복지시설의 지역 안배를 통해 도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충남도립요양원과 충남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충남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장기 재위탁 기관의 경우 신청자가 없이 단독으로 신청하여 위탁받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이고 투명한 위탁기관 선정 과정으로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은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결과와 결과보고서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있다"며 점검결과 보고서 내용에 대해 질의한 후 "추후에도 민간위탁사무의 현장점검 및 지도가 정례적으로 진행되도록 체계화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립요양원 운영과 관련하여 "충남도립요양원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없이 민간위탁만으로 공공의료의 한 영역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며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과 관련해 "도민 전체를 위한 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일부 지역 청년을 위해서만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민간위탁사무의 기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민간위탁을 시행한 과거와 비교하여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는지, 형평성에 맞는 지, 효율성이나 사업성과에 대해 다층적으로 고민하고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과 관련해 충남교육청과 연계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점검해 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조사특위는 지도·점검 결과 보고를 종료하고 차기 회의에서 간담회를 통해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정근/기자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세무사법 개정 앞장선 공으로 기재부장관 표창

이용욱 의원, 국회 기재위원장과 세무사회의 가교역할로 세무사법 개정 이끌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6월 30일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1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세무사의 고유 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의 공을 인정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2021년 1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은 세무사의 고유 업무인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는 것으로, 2018년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합헌불일치 결정 이후 3년7개월여 만에 개정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는 이용욱 의원의 노력이 상당히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용욱 의원은 국회 윤후덕 기재위원장과 세무사회의 가교역할을 함은 물론이고 세무사법 개정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등 세무사법 개정의 공을 인정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2021년 1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은 세무사의 고유 업무인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는 것으로, 2018년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합헌불일치 결정 이후 3년7개월여 만에 개정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제61회 정기총회. 세무사 대한민국 최고의 조세전문가, 경제 전문가 희망찬 미래, 국민과 함께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국회에 계류되어있

던 세무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는 이용욱 의원의 노력이 상당히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용욱 의원은 장관표창 직후 "윤후덕 의원의 지원과 세무사회의 노력으로 법 개정이 가능했다"고 수상의 공을 돌렸으며, "세무사법 개정은 납세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으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최만식/기자

성남시의회, '3분 조례-이준배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이준배 의원, '성남시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 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이준배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는 소개된 조례는 이준배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성남시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성남시 문화예술 분야도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가능한 역할을 하고자 제정한 조례이다. 이를 통해 성남시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 탄소중립을 실천함으로써 녹색성장 달성에 기여하고, 후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일

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4월 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이성용/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 박행인,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 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자: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경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광고국: 1899.9659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제부: 내선 (114)	오락·놀이부: 내선 (118)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라비 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더욱 강화해 나아갈 것"

보건복지위원회 제319회 정례회 기간 중 국내 마약 환자 치료의 60%를 담당하는 "인천참사랑병원" 현장방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제319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7월 3일(월) 인천참사랑병원(인천 서구 소재)을 방문하여

마약류 중독치료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울시 마약류 중독자 치료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참사랑병원은 전국의 마약류 중

독자 치료보호기관 21개소 중 실질적인 마약 중독재활 치료가 가능한 전국 2개소 병원(인천참사랑, 경남국립부곡) 중 한 곳으로 국내 마약 환자 치료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에는 서울시립 은평병원과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나, 마약 치료를 담당할 의료진 부재 등의 이유로 현재 입원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이 아닌 인천을 찾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인천참사랑병원의 천영훈 원장은 "마약류 중독자는 망상, 환청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동반됨에 따라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경우가 많으며, 자살 시도나 자해 등 갑자기 폭력성을 보이기도 한다"며 "이러한 고된 격무에 시달리다 최근 퇴사한 간호사만 무려 15명이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치료비 지원이 부족하고, 치료보호비 청구는 치료보호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라 병원 입장에서는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는 것이 손해가 나는 구조이다. 천영훈 원장은 "한 달 우리병원도 미수금이 1억 5000만원에 달한 적이 있었다"며 "더 이상 마약 중독자의 치료를 감당하기가 버

거운 상황"이라고 마약 치료 현장의 열악함을 토로했다.

또한 천 원장은 현재 마약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 마약류 치료보호 예산확충, ▲ 마약류 관련 환자 의료수가 재조정, ▲ 치료 보호비 청구 절차 개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치료보호 대상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마약류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만이 아니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을 더욱 강화하여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하면서 "마약류 중독자가 다시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보호 예산을 확충하고, 의료인 처우개선 등을 통해 기존 마약류 대응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해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석주 위원장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마약류 환자의 치료와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에서 애쓰고 있는 인천참사랑병원의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다"라며, "앞으로 서울시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을 확대하기 위해 인천참사랑병원 등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관들과 협력하고, 집행기관과 소통하면서 방법을 강구해 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박형준 시장 1년, 부산의 가치와 글로벌 경쟁력을 드높이다!

민선8기 1년,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실현 위해 시민행복도시,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역점



부산시가 민선8기 출범 첫 1년을 맞았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의 민선8기를 시작하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시장의 새로운 가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시민행복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시장의 혁신 기반을 새롭게 다지고 현안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그야말로 쉼 없는 1년을 힘차게 달려왔다.

이에 본지 취재진은 민선8기 출범 첫 1년을 맞이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의 지난 1년간의 업무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하나하나 들여다 봤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민선8기 1년 6대 목표는 ▲내게 힘이 되는 시민행복도시,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허브도시, ▲지산학이 주도하는 창업금융도시, ▲미래를 선도하는 디지털혁신도시, ▲친환경 기술로 앞서는 저탄소그린도시, ▲누구나 찾고싶은 문화관광매력도시 건설에 목표를 두고 목표에 따른 세부 30대 추진성과는 각각 다음과 같다.

▲내게 힘이 되는 시민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15분 도시 부산 실현 본 궤도 진입,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시민이 안심하는 부산'조성에 ▲신혼부부·청년층 맞춤형 주택 공급 등 다양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부산형 복지·돌봄 서비스 고도화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행복한 출발, 함께하는 키움!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했다.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허브도시를 위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위한 성공적 현지실사, 교섭활동 총력 전개,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및 북항2단계 항만재개발 신속추진 동력 확보,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 구축 본격화 및 철도교통망 확충 탄력 확보, ▲최첨단 물류현장 디지털관리 시스템 구축 등 글로벌 물류도시 위상제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영어

하기 편한 도시, 부산'을 추진했다.

▲지산학이 주도하는 창업금융도시 육성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 글로벌 금융중심지 도약 발판 마련, ▲글로벌 금융생태계 조성, 부산 글로벌 금융중심지 위상 제고, ▲지산학 협력도시 부산 기술 마련과 지자체 중심 고등교육 패러다임 전환, ▲부산시, 청년 이탈 막는데 올해 2,200여억원 투입, ▲창업기업 성장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창업허브도시 인프라 확충의 성과를 거뒀다.

▲미래를 선도하는 디지털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스마트센터지수(SCI) 평가 세계 19위, 글로벌 스마트도시로 성큼!, ▲민선8기 역대 최대 4조 6천억원 투자 유치, 9,858명 고용 달성,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으로, 디지털 혁신과 더불어 취약 기업 보호 강화,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 및 지역혁신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활력 추진, ▲스마트 해양·수산 미래신산업 기반 조성 박차! 를 가했다.

▲친환경 기술로 앞서는 저탄소그린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 실현을 위한 이행체계 마련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사업 본격 추진, ▲수소인프라 구축과 수소산업 육성 등 미래 에너지 전환 가속화, ▲생곡주인 이주 전격 합의로 전국 최대 자원순환타운 조성 탄력 확보, ▲대중교통 친화도시 조성,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을 추진했다.

▲누구나 찾고싶은 문화관광매력도시 건설을 위해 ▲오페라하우스·국제아트센터, 최고의 전문공연장 건립 및 본격 개관 준비, ▲부산국제영화제 성공 개최, 영화·영상 저변 확대 등 영화도시 위상 강화, ▲코로나 일상회복 축제 재개, 부산불꽃축제 등 대규모 축제의 성공적 개최, ▲글로벌 IP 활용, 부산형 관광콘텐츠의 획기적 확대, ▲사직야구장 재건축 등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생활체육 전국도시를 조성했다.

이와같은 6대 목표, 30대 세부 추진 성과 결과 부산시는 이렇게 달라졌다.

▲먼저, 부산에 대한 평가와 시선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지난 2021년 4월 7일, 보궐선거로 박형준 시장이 처음 들어선 1년 여의 기간동안 이곳 부산시가 새로운 혁신의 파동을 일으켰다면, 지난 7월 들어 선, 민선8기에는 지난 보궐로 시장이 돼, 추진한 혁신의 물결을 더욱 확산시키며 변화의 노력을 거듭해온 결과, 이제 부산에 대한 평가와 시선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올 6월, 발표한 영국 지연사의 '글로벌스마트도시 평가'에서 서울을 앞지르며 세

계 19위, 아시아 3위 도시로 올려 놓았고, ▲세계적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티(EIU)은 '세계 살기 좋은 도시'에 부산을 아시아 6위로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도시브랜드 평가'에서는 10개월 연속 부산이 전국 1위로 평가 받아 왔고, ▲국회미래연구원이 발표한 '시민행복도시'에서도 특광역시 1위의 평가를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내셔널지오그래픽의 '2023년 숨이 막히도록 멋진 여행지와 체류장소 25곳'에 선정되는 등 이제 부산이라는 도시의 브랜드와 매력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속에 부산의 새로운 글로벌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음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가 지난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며,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부산시 등 '코리아 원팀'을 결성, 전방위적 유치 활동을 전개 해오면서 2030세계박람회 개최 최적 도시로 부산의 유치 가능성을 계속 높여 오고 있다.

▲지난 4월,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 때 보여준 부산시민들의 뜨거운 환대와 강렬한 유치 열기는 심사단에게 인상적인 광경과 감동을 안겨주었고, 정부와 국회, 부산시, 민간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하나 된 힘으로 실사 일정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심사단으로부터 모든 것이 준비된 도시 부산이라는 찬사를 이끌어 냈다.

▲지난달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4차 경쟁 발표(프레젠테이션)의 연사로 직접 나서며 대한민국 국가 차원의 강렬한 유치 의지를 또한 번 전 세계 회원국 대표들에게 전달하면서 부산에 대한 지지세를 더욱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가 한층 더 기대되는 분위기다.

▲박람회뿐만 아니라,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부산의 굵직한 현안들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며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박람회 개최 이전인 2029년에 조기 개항하는 것으로 정부방침('23.3.)을 이끌어냈고, 특별법 개정을 통해 조기 보상착수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단초도 마련했다.

▲또 하나의 국정과제인 한국산업은행 이전도 국토부의 부산 이전지관 지정·고시('23.5.)가 이루어지며 마지막 법 개정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박람회 개최 예정부지인 북항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도 최단기간 만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22.10.)하면서 이후 절차를 진행해나가고 있다.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며

본격 계획단계에 들어선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구축'을 비롯해,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 선정('23.55.)된 '부산형 광역철도 건설사업' 등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할 대형 기반시설(인프라) 건설사업들도 탄력을 받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 창업, 디지털·신산업 육성과 지산학 협력이 튼튼하게 구축되고 있다.

▲부산국제금융센터 3단계 조성, 글로벌 금융클러스터(D-Space) 본격 가동 등 글로벌 금융중심도시에 걸맞는 기반시설(인프라) 확충과 함께, 블록체인 특화 지구(클러스터) 조성, 금융기술(핀테크) 기업육성 등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에 집중했다.

▲지난해 부산에 첫 '아시아 창업엑스포, 플라이 아시아(FLY ASIA) 2022'를 개최하며, 글로벌 창업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고, 부산형 모태펀드 '1조+알파(α)' 조성 추진, 지식산업센터 확충,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 등 아시아 창업도시를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양자컴퓨팅,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ICT)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중점 추진해오면서, 민선8기 1년 동안에만 4조 6천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유치 협약을 만들어냈다. 여기에 더해 지역 주력산업의 고도화,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과 함께,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해양데이터 기반 산업 등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또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역혁신의 동력인 지산학협력체계 구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지역 혁신중심의 대학지원체계

'라이즈(RISE) 시범지역'('23.3.)과 '지자체-대학 지역혁신사업'('23.2.)에 선정되어 지역주도의 고등교육 혁신을 통한 인재양성과 산학 연계 강화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다.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여가고 있다.

▲세계적 미술관 유치와 오페라하우스 건립, 국제아트센터 개관 준비가 속도를 내면서 창작오페라 제작, '클래식파크콘서트' 개최, 벵쿠시장(플리마켓) 활성화 등 문화예술·공연 생태계 조성과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을 위해서 부산의 관광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아르떼뮤지엄' 유치, '9.81파크 조



성' 등 글로벌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위케이션, 미식관광, 해양레저 등의 분야로의 확장도 적극 추진 중이다.

▲민선8기 박형준 시장 또 하나의 큰 이정표인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에 서로 많은 변화와 성과를 냈다.

▲박형준표 대표사업인 15분 도시 조성을 기치로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만들어냈다. 부산형 복지·돌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형 사회보장 지원, 저소득 장애인 지원, 기초연금 등 취약계층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촘촘한 복지·돌봄체계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다.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개소('23.4.), 부산사회서비스원 개원('23.4.) 등 체계적 복지서비스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린이, 신노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하하(HA-HA)센터' 조성에도 속도를 냈다.

▲또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출산지원금 확대, 다자녀 지원 확대를 비롯해 부모급여 신설, 부산형 영유아반 확대 운영, 어린이집 공간식비 지원 등 출산·보육 지원정책이 강화된 점도 눈에 띈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력키7 하우스', 희망더함주택, 원가주택 및 역세권 첫집 공급 등 다양한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체질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도시침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시범운영, 내진보강 강화, 시민안전보험 최초 시행, 첨단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등 시민안전 도시 구축과 서부산의로원 건립,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시립아동병원 건립,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등 공공의료 확충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친환경지능형(그린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해 수소 기반시설(인프

라) 구축과 수소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과 친환경 교통도시 조성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전략이다.

민선8기 지향가치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에 두고 2대 사업 추진 목표는 글로벌 허브도시, 아시아 최고의 행복도시 건설에 두고, 주요 핵심전략은 물류 허브 도시, 글로벌 금융 중심도시, 디지털·신산업 혁신도시,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로의 성장에 시장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15분 도시 확산을 통한 행복공동체 조성 등 시민 행복 도시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정부, 국회, 시의회 등과의 긴밀한 협력과 시민 협치를 바탕으로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비롯한 핵심 기반사업 추진 및 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의 "민선8기를 시작하면서 부산시민들께 약속드렸던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달려와, 이곳 부산에 엄청난 변화와 성과를 거둬 들었다. 이는 저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각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부산 시정에 뜨거운 애정과 성원으로 함께해 주신 부산시민들 덕분이다"라면서,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 아시아 최고 행복도시로의 도약을 더 빨리 앞당겨갈 수 있도록 저와 부산 시장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제 부산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부산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오로지부산시와 부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박형준부산광역시장의 리더 아래 부산시민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힘차게 향하여,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시민행복도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시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윤순수/기자

글로벌 마이스 인재육성하는 지산학협력체계 업무협약

2030세계박람회 대한민국 부산으로! 뉴미디어멤버스가 응원합니다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출시

2023 부산시 뉴미디어 멤버스 발대식

2024 부산세계박람회

FLYASIA 2020

김동연 도지사 4일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상공부장관 면담, “반도체 메카 경기도와 인도 IT 인재 간 시너지 효과 기대”

한-인 수교 50주년 맞아 경제협력 맞춘

경기도의 반도체 기반, 인도의 우수 IT 인력 간 시너지 효과 기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인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상공부 장관을 연이어 만나 ‘반도체 실무협력체’ 추진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지 시각 4일 오후 뉴델리의 인도 철도본부 청사에서 아쉬위니 바이쉬나우(Ashwini Vaishnaw)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을 만났다.

우선 김동연 지사는 챗지피티(Chat-GPT)로 준비한 인사말인 ‘경기도는 IT(정보통신)과 AI(인공지능)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가장 앞서고 있는 프런티어(선두 주자)다. 특히 IT와 관련해 전문성이 큰 인도와의 협력에 대해 가장 적합한 파트너가 될 것이며, 판교 테크노밸리가 대한민국에서 IT와 챗지피티의 성지처럼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아쉬위니 바이쉬나우 장관은 “경기도는 삼성, SK하이닉스와 같은 선도 기업이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라며 “특히 한국은 이미 반도체 강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도움 받을 이 앞으로 많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세계 굴지의 반도체 회사들이 경기도에 광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의 투자 계획에 따라 경기도는 메가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원해 전 세계적 반도체 메카가 되려 한다”라며 “인도가 갖고 있는 IT 우수인 인력이 함께 한

다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경기도도 인도의 도움을 받고 함께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김동연 지사가 인도 정부, 경기도, 국내 대기업·반도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력체 구성을 제안했고, 아쉬위니 바이쉬나우 장관은 이를 축색에서 받아들였다.

이어 아쉬위니 바이쉬나우 장관은 인도가 추진 중인 경제정책을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인프라 구축 ▲제조업 육성정책(Make in India) ▲전자지불시스템 구축 ▲혁신과 스타트업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한국과의 협력 잠재력이 많다고 소개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인프라 부분은 경기도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으면 좋겠다. 국내 제조업 기업들이 인도 추가 진출을 희망하는 가운데 IT와 AI 등 첨단산업을 추가적으로 해서 협력할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말씀드린다”며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경기도는 전통제조업·농업 분야에서 디지털 라이징을 추진하고 있다. (벤처 관련) 경기도를 벤처,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판교에 그와 같은 벤처기업·캐피탈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쉬위니 바이쉬나우 장관은 김동연 지사가 내거는 경제정책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자 “답변을 꼼꼼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답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네 가지 전략을 아주 적절하게 포인팅 잡은 것 같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제가 대한민국의 25년 뒤를 보면서 만든 비전(비전 2030)이 있었는데, 그 경험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며 “그 당시 한국은 경제 발전과 별도로 사회시스템, 소셜캐피탈(사회적자본) 등이 부족해 양극화,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생겼다. 충분히 고려하시겠지만, 장관님이 넓은 시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겸손하게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에 아쉬위니 바이쉬나우 장관은 “소셜캐피탈 문제 중요하다. 연 6~7%씩 성장하는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다”라며 “조언을 감사히 그리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주겠다”고 답했다.

인도는 인텔, 삼성전자 등 주요 반도체기업의 연구·개발(R&D) 센터를 다수 유치할 정도 반도체 산업 육성에 관심을 쏟고 있다. 도는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소재지이면서 민선 8기 들어 세계 반도체 장비사 1~4위의 연구소를 유치하는 등 ‘반도체 메카’에 다가가고 있다.

아쉬위니 바이쉬나우 장관은 통신부, 철도부 등 3개 부를 경직하고 있는데, 김동연 지사는 지난 6월 수백 명이 숨진 인도 기차 사고와 관련해 주한인도대사관에 애도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아쉬위니 바이쉬나우 장관은 참사 지역인 오디샤주 상원의원이기도 하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뉴델리의 인도 상공부 청사에서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공부 장관을 만나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상공부 산업무역진흥 사업으로) 10월 개장할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컨벤션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道)를 대표하는 지사로서 지금 인도와 협력관계를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와 상공부 장관 등 인도 고위급 인사와의 만남은 김동연 지사와 인도 간 오랜 인연이 뒷받침됐다. 김동연 지사는 2017년 경제부총리 시절 한-인도 재무장관 회의에서 인도 재무부 장관을 만나 금융·교역 등

경제협력을, 같은 해 마하라슈트라주 총리를 만나 국내기업 진출방안을 각각 이야기했다. 경기도지사로서 올해 3월 7일 아밋 쿠마르(Amit Kumar) 주한 인도 대사관을 만나 인적 교류, 반도체, 전기차 등 미래 신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뉴델리에서 약 20km 떨어진 삼성전자 노이다 연구소를 방문했다. 경기도에 본사를 둔 삼성전자와의 협력관계 등으로 성사됐으며, 노이다 연구소가 2022년 2월 확장 이전한 후 정부 기관의 첫 방문이다.

2007년 9월 설립된 연구소는 스마트폰 장치 성능 등을 주로 연구한다. 2만 2천㎡(10개 층) 규모로 2천300여 명의 직원 중 연구·개발(R&D) 인력만 1천595명이다. 특히 현지 젊은 정

보통신(IT) 인재들을 영입해 평균 연령이 27세일 정도로 젊음, 혁신, 상상 협력의 상징으로 평가받는다.

김동연 지사는 박종범 삼성전자 인도법인 대표 겸 서남아총괄 등과 연구소를 시찰하고, 인도인 청년 직원 1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동연 지사와 인도 청년 직원들은 경기도-인도 인적·기술 교류, 혁신 정신, 협력을 위한 역사·문화 이해 등을 얘기했다.

김동연 지사는 “여러분 같은 젊은 혁신가와 삼성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양국의 협력을 상징하는 사례라고 생각한다”라며 “양국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고 배우는 윈윈(win-win) 관계다. 자부심을 갖고, 양국 관계의 가교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이권재 오산시장, LH 이한준 사장 초청,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등 오산현안 해결 협조요청

4일 동부대로 현장방문한 이 사장 추진사항 후속조치 점검

이권재 오산시장은 4일 오후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오산시로 초청했다.

이날 이권재 시장과 이한준 사장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중 하나인 오산시청 동부대로 고속화 사업 현황을 함께 방문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2월, 올해 3월을 이어 세 번째 만남으로, 경제도시 오산 시대를 뒷받침할 광역교통개선대책 조기 추진을 당부하기 위한 이권재 시장의 의지에서 비롯됐다.

이한준 사장은 이권재 시장의 요청사항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패스트트랙의 추진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이날 오산 방문을 계기로 추진사항 후속 점검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권재 시장은 동부대로

오산시청 지하차도의 올해 말 개통과 함께 대원 지하차도의 조기 개통에 힘써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이권재 시장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인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동부대로 연속화사업 △서부우회도로 △오산역 환승주차장 연결도로 및 대중교통 연계 지원 △국지도 82호선 장기-남사구간 확장 △남사진위IC 서울방향 개설 △지방도 310호선 확장 △벌음교차로 임시개통 △서울역행 광역급행버스(M버스) 신설을 줄곧 건의해왔다.

그 과정에서 △서부우회도로 가랑교차로 구간 우선개통(2022년 11월 8일) ▲오산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 확정(2022년 12월 22일) ▲동부대로 오산시청 지하차로 2차로 우선개통(2022년 12월 31일) △서부우회도로

가랑-초평동간 우선개통(2023년 6월 30일)의 결과를 순차적으로 냈다.

이권재 시장은 이에 더해 원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당면 현안에 힘써줄 것을 추가로 요청하기도 했다.

이권재 시장은 “여러 사정으로 상당 기간 오산시의 기반시설 공사가 지연된 만큼 앞으로는 패스트트랙 공정관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LH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란다”고 완곡히 부탁했다.

이한준 사장은 이에 “지연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겠다”면서 “오산시 원도심과 세교2지구가 균형잡힌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 할 수 있도록 LH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양시현/기자



고양특례시, 8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

상수도 요금 7년만의 인상...2025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추진

고양특례시가 오는 8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상수도 요금은 2025년까지 3년간 10.2%씩, 하수도 요금은 2026년까지 4년간 10%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또한 상수도의 경우 가정용 누진체계를 폐지하고, 일반용·대중탕용은 누진단계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인상 첫해에는 ▲상수도 가정용 1단계(1~20톤) 요금은 톤당 495원에서 545원(50원↑)으로 ▲하수도 가정용 1단계(1~20톤) 요금은 톤당 460원에서 506원(46원↑)으로 인상된다.

오는 8월 고지분부터 월 24톤을 사용하는 4인 가구는 상하수도 요금을 지금보다 한 달에 2,07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상수도 7년만, 하수도 6년만에 오르는 것이다. 시는 그동안 시민 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자제해왔으나, 원가 대비 낮은 요금으로 인한 재정 적자 누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투자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와 노후시설 투자 자원 마련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민 여러분께 양해를 부

탁드린다.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용인특례시, '공공하수도 설치 안된 곳' 편입 신청하세요

용인특례시가 공공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공공하수처리구역 편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관로 연결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개인은 하수정화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시는 수질오염 방지와 시민의 공중위생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시는 앞서 지난달 28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기술용역에 착수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진행이 어려웠던 민간사업을 포함시키고,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용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민원서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오는 31일까지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경기도 용인특례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2층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편입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은 오는 2024년 12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공공하수도에서 하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 일부 지역은 공공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되지 않아 개인의 부담과 수질오염 방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해 하수도 보급을 향상과 하수운영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제9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大賞(대상)' 후보자 공모

종합대상 1명, 경영혁신·기술개발 등 6개 부문 대상 각 1명 선정

수원시가 '제9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大賞(대상)' 후보자를 7월 27일까지 공모한다.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은 기술개발·생산성 향상·수출 증대 등으로 수원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대외 경쟁력과 수원시 위상을 높인 중소기업인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종합대상 1명과 ▲경영혁신 ▲기술개발 ▲수출진흥 ▲창업·벤처 ▲일자

리 창출 ▲노사화합 등 6개 부문에서 대상 각 1명을 선정한다.

'중소기업기본법'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6월 28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수원시에 주 사무소 또는 공장이 있고,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상장을 수여한다. 또 3년간 '수원시 우수기업'으로 예우하고, 해외박람회 참가 등 수원시

통상시책을 신청하면 가점을 준다.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이자 보전 추가지원(2%→2.5%) ▲수원시 중소기업지원시책 지원 시 우선권 부여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으면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등 혜택도 있다.

수원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중소기업'을 검색해 제출서류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다.

7월 27일까지 수원시 기업일자리정책과(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방문·우편(7월 27일 소인분까지) 신청해야 한다. 방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9월 경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은 10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시상해 기업인의 자긍심과 영예를 높일 것"이라며 "선정된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2023 제9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大賞 모집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수출 증대 등 대외 경쟁력 제고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인 우수 중소기업인 발굴을 시행하고, 2023년 제9회 수원시 우수 중소기업인 공모를 모집한다.

신청인원: 총 7명

- 경영혁신 대상 1명
- 기술개발 대상 1명
- 수출진흥 대상 1명
- 창업·벤처 대상 1명
- 일자리 창출 대상 1명
- 노사화합 대상 1명

수상자 인센티브

- 수상 트로피 수여(대상 포함)
-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이자 보전 추가지원(2%→2.5%)
- 수원시 중소기업지원시책 지원 시 우선권 부여
-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으면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등 혜택도 있다.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2023. 7. 10.(수) 09:00 ~ 7. 21.(금) 18:00

신청처: 수원시청 기업일자리정책과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문의: 031-220-1100



인천 동구,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자 모집

2023년 동구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모집

2023. 7. 10.(수) 09:00 ~ 7. 21.(금) 18:00

대상: 인천동구 19세 이상 70세 이하 주민

신청처: 인천동구 평생교육센터 (인천동 111-1번지)

문의: 인천동구 평생교육센터 (031-220-1100)

성남시 "모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성남시는 이달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 부부는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기존에 '중위소득 180% 이하'로 하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이 폐지

됐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성년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대상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는 1회당 110만원까지 총 21회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술 종류별로 체외수정(시험관) 시술 신선 배아 최대 9회(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 배아 최대 7회(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회당 최대 30만원) 지원이 이뤄진다.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각 시술을 모두 받을 때 최대 149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지원신청은 수정, 중원, 분당 등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성남지역 난임 부부는 지난해 말 기준 5569명(남성 2141명, 여성 3428명)으로 집계된다"면서 "시술비 지원 사업 확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성훈/기자

안산시, 우리한우연구소로부터 후원금 500만원 기탁 받아



안산시는 지난 4일 우리한우연구소로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후원금 500만원을 기탁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우리한우연구소는 단원구 고잔동에 위치한 한우생각비전점으로 2017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장학금 후원 및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하고 있다.

김병도 대표는 "하루 매출액 전부를 기부하는 날엔 손님들도 좋은 일에 동참

하고 싶은 마음에 평소보다 더 많이 방문하신다"며 "이런 나눔이 모여 어려운 취약 계층에 잘 사용될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도 저소득 가정에 관심과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김병도 대표님께 감사드리다"며 "따뜻한 마음을 담은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인천 동구가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자를 모집한다.

동구 평생교육 바우처란 동구 주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원하는 평생학습 강좌를 선택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시 지자체 중에서는 동구가 최초로 시행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1년 이상 동구로 등록된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동구청 협약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단, 국가장학금, 국가 평생교육 바우처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1인당 10만원의 평생교육 바우처 전용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지원된다.

동구사랑상품권 기증으로 등록된 예체능 학원(어학, 음악, 미술, 직원훈련학원, 사예, 무용 등) 및 평생교육기관(동 주민자치센터, 구직영 평생교육 운영시설, 체육시설, 공방) 등에서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재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신청 자격 확인 후 온라인 전산 추첨을 통해 500명을 선정, 8월 중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평생교육 수강료, 재료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을 위해 경제적 부담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평생교육 강좌를 선택하고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구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평생교육에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50돌 맞은 안양시...최대호 시장 "4차산업혁명 거점·수도권 교통허브 도약"

시 승격 50주년 및 민선 8기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 4일 개최



최대호 안양시장은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안양시를 4차산업혁명을 이끌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고, 수도권 교통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안양시는 4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상황실에서 '시 승격 50주년 및 민선 8기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최 시장은 민선 8기 1주년의 주요 성과로 ▲전국 최초 사단법인 노동인권센터 설립 ▲출산지원금 2배 인상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국민권익위) ▲재난기본소득 지급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승인(산림청) ▲상병수당 시범사업 선정 ▲확장현실(XR)과학부품 거점센터 유치 ▲원스퀘어 철거 등을 꼽았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 경기거점센터 설립, 스마트스쿨존 안전시스템 구축, 청년정책 종합계획 수립, 관악수목원 시범개발 등 민선 7기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 시장은 특히 안양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강조했다.

현 시청사 부지에 미래선도 글로벌기업 유치를 유치하고자 지난해 7월 전문가, 시민, 사회단체, 시·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 총 20명으로 동반성장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시민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안양교도소 이전 및 안양범무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안양역 앞 장기방치건축물 원스퀘어를 24년 만에 철거하는 등 오랜 숙원사업을 풀어나갔다.

박달스마트티 조성 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 가처분 소송 승소 후 재공모

를 진행 중이며, 인덕원 일대는 복합환승센터 등 개발계획을 수립 및 고시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 시장은 "인덕원역은 GTX-C노선의 추가정차역으로 확정돼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라며 "관내 4개역이 신설될 예정인 월곡~판교선은 지난 2월 안양역을 시작으로 착공됐고, 석수2동 방향으로 출입구가 신설되는 신안산선 석수역은 오는 2025년 준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촌신도시와 관련해 특별법 보안을 건의하기도 한 최 시장은 "국토교통부와 마스터플랜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며 재정비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시장은 "3선 시장으로서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영광스러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송 가쁜 1년을 보냈다"며 "미래를 위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안양시를 4차산업혁명의 신성장 거점도시, 수도권 교통 허브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주택·일자리 등으로 청년들이 찾아오는 청년특성지 뿐 아니라 교육 인프라가 강한 안양의 장점을 살려 교육·문화·복지가 공존하는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안양시는 1941년 10월 1일 시흥군 서이면서 안양면으로 개칭된 후 1949년 8월 14일 안양읍으로 승격됐으며, 1973년 7월 1일 안양시로 승격됐다.

한편, 최 시장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제24회 세계코리아포럼' 참석을 위한 출장을 마치고 전날 귀국했다. 최 시장

은 지난달 29일 오전 9시(현지시각) 포럼에서 '글로벌 융합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메콩벨트 허브를 잇다'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다.

통판 사반펫 라오스 외교차관, 글린 포드 트랙투아시아 대표(전 유럽의회 의원) 등 세계 20여개국 100여명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 시장은 연설을 통해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등 안양시의 강점을 널리 알리고 라오스와 적극 교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 30일 라오플라자호텔에서 안양과 전상공회의소와 함께 '수출촉진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광생 시사봉 라오스국립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및 현지 기업인과 만나 시장 개척과 판로 모색에 대한 간담을 나누고 향후 후속 만남을 갖기로 했다. 아울러 안양과전상공회의소는 라오스국립상공회의소와 협력강화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시는 관련한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출장 중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에서 정영수 대사와 만나 라오스 현지 동향을 파악하고 관계 구축을 약속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비엔티안무역관에서 라오스 경제 상황과 진출 시 주의점 등에 대한 김필성 무역관장의 브리핑을 듣고 면담을 가졌다.

최 시장은 출장과 관련해 "수많은 라오스 관계자를 만나 시 상공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면서 "현장에서 논의한 것이 시의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화성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개최

2023. 7. 12. (수) ~ 7. 14. (금) 3일간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전남도, 올해의 섬 가거도서 영해기점 가치의 의미 되새겨

해양영토 순례...역사·생태·문화적 가치 공유

전라남도는 5일까지 2일간 신안 가거도 일원 해상에서 해양영토 의식을 고취하고 가거도의 역사·생태·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해양영토 순례, 올해의 섬 가거도를 가다'를 개최했다.

목포해양대학교 등이 주최·주관하고 전남도, 신안군, 전남대학교 무인도서연구센터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일반인과 학생 170여 명이 참여했다.

2023년 올해의 섬으로 선정된 국토최서남단 가거도와 홍도, 흑산도 일원에서 진행된 해양영토 순례를 통해 섬 영해기점으로서 가거도의 의미를 되새기고 영토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양영토 순례 행사는 ▲가거도 바로알기 퀴즈 ▲해양영토 특강 ▲올해의 섬 지정 기념 합수식 ▲태극기 가거도 퍼포먼스 ▲가거도 사랑음악회 ▲라운드테이블 토크 ▲서해의 아침 이벤트 ▲홍도 10경, 흑산도 해상관광 ▲가거도 송년우체통 엽서쓰기 등 해양환경보전과 영해기점의 의미와 가치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대한민국 최서남단 가거도 해양영토 순례 영해기점으로서 가거도의 의미를 되새기고 영토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미래 성장동력인 섬을 가꾸고 보존하며, 섬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올해의 섬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가 해양영토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섬의 가치 홍보를 위해 대한민국 영해기

점 유인도 7개를 대상으로 매년 1개소씩 선정하고 있으며, 신안 가거도가 선정 첫해 최초로 선정됐다.

박종배/기자



최경식 남원시장,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 만나 국가예산 확보 건의

연일 국회방문 국가예산확보와 지역현안사업 해결 앞장서



최경식 남원시장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지난주 국회를 찾은 데 이어 또다시 국회를 방문,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면담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 및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전방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경식 시장은 5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방문 국가예산 확보 및 현안사업 해결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최 시장의 이번 국회 방문은 정부 각 부처에서 제출된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기재부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강화발

표에 따라 민선8기 시의 핵심사업 등을 내년도 국가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의 만남에서 최 시장은 '남원 드론문화체험관 건립' 사업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드론·항공산업은 남원시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남원시에서는 오는 10월 FAI 2023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및 드론문화체험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드론산업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이어, 예결위 소속 이원택, 김승원의원실을 차례로 방문 남원시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위원과도 면담을 갖고 남원·순창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남원시 중점 예산 확보 대상사업으로 ▲남원 드론문화체험관 건립(총사업비 250억원), ▲도자전시관 건립(150억원), ▲국립 지리산 등산학교 건립(80억원), ▲남원·순창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783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간사와 면담을 통해 지역현안 사업인 국립전원설립법률(안) 통과를 건의했으며, 지역구 이용호 의원을 방문, 전북대학교의 글로벌대학30 지정과 관련 서남대 유휴 캠퍼스의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등 전북대 남원캠퍼스 설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협력을 요청했다.

최경식 시장은 "예산심의회 본격 진행되는 하반기에는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남원시의 현안사업 해결과 중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나주시, '약취통합관제센터' 개소... 연중무휴 약취 모니터링

약취측정기, 기상관측기 설치 운영,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나주시가 민선 8기 시민과의 약속인 약취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광주·전남 지자체 최초 '약취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나섰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3일 시청사 별관 로비에서 운영체 시장, 이상만 시의회장, 도시의원, 부서 관계자 30여명과 약취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센터는 도비 5억원 포함해 총 사업비 12억원을 투입, 시청사 별관 3층 전산교육장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신설했다.

공간정보시스템(GIS) 등 혁신 기술을 통해 약취발생 상황을 시각화할 수 있는 통합 관제(모니터링)시스템으로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한다.

은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농가, 사업장 간 상생, 지속가능한 경영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민선 8기 첫 초직 개편을 통해 약취 전담부서인 '약취개선팀'을 신설한 데 이어 약취개선추진단, 약취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다.

환경관리과, 도시미화과, 축산과 등 약취 관련 5개 부서로 구성된 약취개선추진단에서는 약취 저감 시책 추진 현황 공유, 약취 사업장 지도·점검 등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약취관리에 힘쓰고 있다.

약취대책위원회는 시의원, 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약취 저감 시책 발굴, 추진 성과 공유 등의 역할을 한다.

시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약취 저감에 120억원을 투입해, 17개 시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빛가람동 약취 배출사업장 및 양돈농가 랜더링 시설 설치', '전라남도 축산연구소 협업 양돈농가 맞춤형 냄새저감 환경기술 실증', '양국공산반남면 일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 기반 구축', '축사 환경개선 기술 실증', '운실가스 저감을 위한 저탄소 약취저감 모델 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

개별 축산농가에는 약취 저감제 공급, 퇴비부숙용 기계장비, 수분조절제 지원 등에 35억원을 투입한다.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선정된 노안면 금안리, 문평면 오름마을에서는 대규모 도시를 철거하고 정비된 공간에 귀농·귀촌 숙박시설, 영농실습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영만/기자



완도군,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 소재 공급기지 입지 다져

2023 해양바이오 박람회 참가, 기반 시설 구축 및 기능성 제품 홍보



완도군이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린 '2023 해양바이오 박람회'에 참가해 서남해권 해양바이오 소재 공급기지로 입지를 다졌다.

해양바이오 박람회는 해양수산부와 전남도 등 3개 광역 지자체가 주최하고 완도군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7개 지자체 및 기관이 주관한 행사로 해양바이오 포럼, 바이오 소재 설명회 등이 진행됐다.

군은 박람회에서 서남해권 해양바이오 홍보관을 운영하며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조성 등 해양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리고 지역 해조류를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전시 등을 통해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산업을 이끌고 있음을 알렸다.

특히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내 기업 유치에 대한 상담에서는 해

조류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화장품 사업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군에서는 해양헬스케어 유효성 실증 센터, 해조류 활성 소재 인종·생산 시설 등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시설을 구축 중이며, 특히 해양바이오 소재의 표준화·국산화를 위한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는 등 해양바이오산업 순환 구조 완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신우철 군수는 "이번 해양바이오박람회 참가를 통해 완도군의 해양 바이오산업 기반과 육성 계획을 정부 및 기업에 알리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면서 "우리 군이 서남해권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 소재 공급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영률/기자

이상의 함평군수, 상반기 급여 전액 인재양성장학금 기부

이상의 전남 함평군수가 후보 시절 군민을 위해 급여 전액을 기부하기로한 약속을 실천했다.

함평군은 "민선 8기 1주년을 맞이한 이상의 군수가 상반기 급여 4,720만원 전액을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에 기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군수는 후보 시절부터 인재 양성을 위해 급여 전액을 반납할 것을 약속하고, 월급과 수당을 군 세입세출회계로 계좌에 보관해 왔다.

민선 7기 후반기부터 현재까지 3억여 원 기탁

이로써 민선 7기 후반기부터 현재까지 총 3년여 간의 재직기간 동안 이 군수가 인재양성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3억여 원에 달한다.

이상의 군수는 "함평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장학금 조성에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은 1993년 8월 법근민 애향운동으로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군은 2023년 인재양성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187명을 포함, 현재까지 총 4,436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김영진/기자

순천 쌀 '나누우리',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3년 연속 우수상

철저한 품질관리로 소비자의 신뢰받는 쌀로 우뚝

순천시 대표 브랜드 쌀인 '나누우리'가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는 전라남도가 전남 쌀의 고급화를 위해 2003년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농업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6개 기관에서 밥맛, 품종, 중금속, 잔류농약 검사 등 8가지 분야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매년 선별하고 있다.

순천쌀 대표 브랜드 '나누우리'는 건강과 밥맛이 우수한 순천 쌀을 함께 나누자는 의미이다.

생산에서부터 매입·저장·가공·유통

까지 순천농협의 철저한 품질관리로 밥맛이 좋아 쌀 소비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받고 있다. 특히 계약재배로 생산 농가에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유인책으로 소득을 보전해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순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3년 연속 우수상 수상은 순천시와 순천농협, 농업인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맛과 품질로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준/기자

전북도-외교부,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

전라북도는 외교부와 공동으로 국제기구에 취업을 희망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지난 4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3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유엔사무국, 세계보건기구 등 10개 국제기구의 인사·채용 담당관 11명이 참여했다. 특히, 전북 외에도 광주, 통영,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청년 200여 명이 현장을 찾아 국제기구 진출에 대한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명회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외교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프로그램 소개와 이번 행사에 참여한 10개 국제기구 인사담당관 소개가 있었다. 2부에서는 각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과 직무능력, 취업절차 등을 설명

하고, 이후 설명회 참가자와 국제기구 인사담당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3부에서는 사전에 영문으로 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제출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국제기구 인사담당관과 1:1 모의 면접을 실시하며 설명회를 마무리했다.

이외에도 전북일자리센터는 홍보관을 운영하며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정보 제공과 각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내했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 청년들의 도전은 전북과 대한민국의 경제영토, 문화영토, 외교영토를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계를 향한 도전을 늘 응원하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유엔사무국 등 10개 국제기구의 인사담당관 11명 참여



진도군 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성료

치매예방부터 관리까지...치매환자와 돌봄가족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



진도군 치매안심센터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치매예방 맞춤형 프로그램은 치매환자를 위한 심터프로그램 '소중한 나의 기억'과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뇌튼튼 치매예방교실', '두들치 치매예방교실'로 등이 있다.

치매환자 심터프로그램인 '소중한 나의 기억'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의 신체 건강과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 ▲색칠 북 교육 ▲꿈지락 마을돌봄 교육 ▲손자극을 위한 만들기 수업 ▲근력 증진을 위한 실버홀라댄스 등으로 진행했다.

또 '뇌튼튼 치매예방교실'과 '두들치 치매예방교실'은 주 1회, 치매 발

생 요인을 줄이고 치매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교육으로 진행했다.

특히 치매환자 돌봄으로 지친 가족을 위해 ▲'헤아림' 가족교실 ▲'어울림'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등을 운영, 올바른 치매환자 돌봄 정보와 휴식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진도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는 더 이상 노인들만의 질병이 아님을 인지하고 치매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검진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길러야 한다"며 "앞으로도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강 한 진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원규/기자

화순군, 8월 19~20일 제20회 전국국악대제전 개최

화순군은 (사)화순국악진흥회가 주관하는 전국국악대제전이 오는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화순군 하나옴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전국국악대제전은 근·현대 전통문화 예술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남 지역의 중심지에서 국악을 계승하며 국민의 국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국악 발전의 주역이 될 재능있는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국국악대제전은 올해로 제20회를 맞이했으며 8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

부과 신인부는 무료로, 일반부는 참가비 5만 원으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19일에는 오전 9시에 예선전을 시작으로 판소리, 기악, 민요, 무용, 고법 5개 분야에서 경쟁이 펼쳐지며, 본선은 20일(일) 예선 통과자들을 대상으로 오전 9시에 치러지며 오후 2시 40분부터는 축하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수상자들에게는 국회의장상을 비롯해 국무총리상, 문화체육부 장관상, 교

육부장관상, 전라남도지사상, 화순군수상, 화순군의회 의장상을 비롯해 영예의 상장과 함께 최대 3백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에서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전국국악대제전이 꾸준히 열려 훌륭한 인재가 발굴되고 예향의 고장이라는 명맥을 이어 나가서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올해도 전국의 참가자들이 국악대제전에 참가하여 국악 실력을 뽐내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원규/기자



강진군 '프리미엄 호평',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우수상 선정

18년 연속 선정...대한민국 최고 쌀 위상 거듭 확인



전남 강진군 프리미엄 호평이 '2023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18년 연속 전남 10대 브랜드 쌀에 이름

을 올렸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은 매년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전문기관의 평가단이 시중에서 무작위로 시료를 구입해 쌀 관련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하고, 품질 혼입률, 품질, 외관 품질, 식미 평가, 중금속·잔류농약 검사, 서류·현장 평가 등 엄격하게 심사해 선정한다.

'프리미엄 호평'은 최신 정미시설에서 피해림, 유색립, 싸라기, 이물질을 제거한 96% 이상 무결점 완전미로 강진 쌀의 대표 브랜드이다.

또, 정부보급종 정도의 순도를 가지고 있는 전남농업기술원 채종포에서 생산한 종자를 사용하며, 강진군농협 통합RPC에서 수매 건조 후 저온저장 창고에 별도 보관을 통해 최상의 미질을 유지하고 있다.

김달욱 RPC 대표는 "프리미엄 호평의 우수상 선정은 우리 농업인의 노력과 최신식 도정시스템을 갖춘 시설, 여기에 안정적 생산과 판로 확보를 위한 군의 지원이 어우러진 결실"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은 태풍과 병해충에 강하고 미질이 좋은 새청무쌀을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으로 선정했으며, 매년 3,000ha를 계약재배하고 농협자금과 군비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박원규/기자

구례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 선정

약취측정기, 기상관측기 설치 운영,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전남 구례군이 국토부가 지정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선정됐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활용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드론 전용 규제 특구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내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량증명과 안전성 인증, 비가시권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특별비행 승인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구례읍 섬진강 일원(구례읍, 문척면), 지리산 일대(토지면) 등 3구

역이다.

군은 민간기업과 협업체 심진강 내수면 안전 관리 및 지리산 산불 및 조난 등 사전 예방을 위한 드론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구례군은 드론 실증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고 행정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에 선정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함께 드론 LRS(Land, River, Sky) 실증사업을 통한 섬진강 및 지리산 안전 모니터링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김성 장흥군수, 남부권 해양스포츠 선수촌 유치 추진

김성 장흥군수가 최근 남부권 해양스포츠 선수촌 유치를 건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김 군수는 지난달 29일 김은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이용호 간사 간사, 홍익표 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장흥군은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과 연계한 장애인 전문 남부권 해양스포츠 선수촌을 유치해 지역 스포츠산업 경쟁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장애인 해양스포츠는 수상종목(카누, 조정 훈련장 등) 전용 훈련장 전문화 상황이다.

장흥군은 패럴림픽 10위권 도약과 해양스포츠 강국의 교두보 마련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흥군에 장애인 해양스포츠 선수촌이 들어서면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과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연수가 가능해진다.

해양스포츠 선수촌 조성이 현실화되면 조정, 카누, 트라이애슬론, 워터마라톤 등 종합 해상 훈련장 시설에 남부권에도 들어서게 된다.

김성 군수는 "앞으로 국회, 정부 부처와 소통을 강화하고, 장흥군이 스포츠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발로 뛰는 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원/기자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홍보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성료

통합 정책발전 방안 의견 제시공유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가 홍보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달 30일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홍보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홍보위원 위촉과 통합에 대한 분임토의가 이뤄졌다.

워크숍에서는 통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회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회원들간 통합에 품돌 뭉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신안군 생산 농수산물 적극 구매운동 전개, 화합형 공동축제 개발, 1:1 대면홍보 등 통합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아울러, 통합의 염원과 함께 전남 서남권의 30년 숙원 사업인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향한 열망을 담아 전남권의 대우치 퍼포먼스를 펼쳤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통합은 후손들에게 더 좋은 목포, 큰 목표를 물려줄 수 있는 정책사업으로 SOC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최태욱 위원장은 "목포와 신안은 한 뿌리다. 신안군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해소할 수 있도록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신안을 방문해 발로 뛰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백선엽장군의 호국정신 계승, “대한민국 호국성지 경북” 만든다

다부동전적기념관, 장군 동상 제막식 및 서거 3주기 추모식 개최
경북도, 영웅들을 기억하고 존중과 섬김의 보훈정책 적극 추진
이철우 도지사, “**철국 다부동 일대에 호국메모리얼 공간 조성, 미래 세대들의 호국·안보 교육 장소로 만드려 경북을 대한민국 호국의 성지로 만들겠다**”



경북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한 백선엽 장군 동상 건립사업을 완료하고, 5일 철국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장군 동상 제막식 행사와 장군 서거 3주기 추모행사를 개최했다.

백선엽 장군 동상 건립사업은 민간에서 주체가 돼, 지난해 12월 21일 동상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동상은 총 사업비 5억원(국비 1.5, 도비 1, 성금 2.5)을 투입해 제작됐고, 성금모금 활동에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 민간에서 개최해왔던 ‘백선엽 장군 서거 추모행사’를 올해 처음으로 경북도, 국가보훈부, 육군본부, 철국군이

공동으로 주최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개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본 행사에 앞서 이날 오전, 6.25전쟁 다부동전투 당시 지계부대원으로 참여한 지역주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다부동전투 참전 주민위령비’제막행사를 개최해 6.25전쟁의 숨은 영웅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계부대는 다부동전투 당시 지역민으로 구성된 민병대로 지계에 탄약, 식량, 보급품 등을 신속하게 실어 나르며 치열했던 전투의 숨은영웅들이다.

다부동 전투 참전 주민위령비는 백선엽

장군의 장녀인 백남희 여사가 사비로 추모비를 건립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를 잇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이날 오후 개최된 백선엽 장군 동상 제막식 및 서거 3주기 추모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장관,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김재욱 철국군수,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 국회의원, 폴.J.라카메라 한미연합사령관, 안병석 한미연합부사령관, 신희원 제2작전사령관, 윌러드 벨레스 미8군사령관 등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동상 제막식은 ▲국민의례 ▲여는 영상 ▲동상건립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감사말씀 ▲영상 인사말 ▲동상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백선엽 장군 3주기 추모식은 ▲개식선언 및 국민의례 ▲헌화분향 ▲환영사 ▲추념사 ▲감사말씀 ▲추모공연 순으로 진행돼 백선엽 장군의 고귀한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백선엽 장군은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면서 북한의 침략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다부동 전투’의 주역으로 전쟁 당시 “내가 물러나면 나를 썩라!”라며 도망치는 장병들을 막았다고 알려져 있는 분으로 이 다부동 전투 승리 덕분에 국군과 UN(유엔)군이 낙동강에 교두보를 마련함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이 가능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은 백선엽 장군을 비롯한 호국영령 과 6.25전쟁 시 참전용사와 지계부대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숨은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알릴 위령비 제막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경북은 나라를 지킨 영웅 한분 한분을 기억하고 예우하며 최선을 다해 모시고 섬김의 보훈정책을 적극 추진해 국가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에도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면서, 아울러 “철국 다부동 일대에 호국메모리얼 공간 등을 조성해 자라나는 세대들의 호국·안보 교육 장소로 만드는 등 경북을 대한민국 호국의 성지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조선일보 ‘2023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 수상

청렴도 1등급, 예산 2조원 돌입, SMR국가산단 유치 등으로 위상 드높여
올해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반드시 유치해 지역발전 밑거름 되도록 행정력 집중

경주시가 지난 5일,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2023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 지역발전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경영대상은 뛰어난 행정전략과 과감한 도전으로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관과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이다.

시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단지 유치 ▲차세대 첨단과학 혁신도시 조성 ▲신경주역세권 해운 플랫폼 시티 선정 ▲신형산강 프로젝트 선정 등의 공로를 인정 받았다.

특히 2025년 중공 예정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함께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을 구축해 SMR 수출시장을 선점할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단지 유치를 높이 평가했다.

여기에 차세대 첨단과학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3년간 900억 규모의 산업부 공모사업에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센터 ▲탄소 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센터 ▲e-모빌리티 배터리 통합관리 허브 센터가 내년 10월까지 차례로 완공되는 점도 수상의 배경이 됐다.

또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예산 2조원 시대 진입 ▲외부기관 평가 59개 부문 수상 ▲투자유치 MOU 10건, 5315억원 달성 등도 경영대상 취지에 부합했다.

시는 2022년도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

도 평가에서 전국 75개 기초 자치단체 시 부문 종합 1등급을 획득했다.

더불어 민선 8기 1주년 동안 54건, 국비 6462억 원의 역대 최대 공모사업 선정, 지방교부세 6610억원 확보 등 가시적인 성과로 경주시 살림살이가 2조원 시대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선8기 1주년을 맞아 각 분야별 평가에서는 59건의 기관표창을 받는 등 역대 최대 수상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차량, 소재 제조,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유치 업무협약 10건, 투자금액 5315억 원의 괄목상대할 성과도 거뒀다. 이밖에도 1조원을 육박하는 경제유발효과와 8000여명의 고용창출, 국제적 MICE 관광도시 위상제고 등 경주발전 10년 앞당길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유치 경쟁 도시 중 유일한 기초 자치단체인 경주시는 정부의 지방 균형발전의 국정목표와 APEC 비전인 포용적 성장가치(소규모 도시 개최) 실현에 최적지이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올해 SMR 국가산단에 이어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도 반드시 유치해 세계 속의 경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원전과 미래차 산업을 연계한 차세대 첨단과학 혁신도시를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영양군, 다수인·집단갈등민원 관리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다수인·집단갈등민원 예방 및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 위해 민원 조정위원회 의견수렴

영양군은 지난 4일 소회의실에서 박준로 민원조정위원장 주재로 다수인·집단갈등민원 관리계획 보고의 건으로 ‘제2회 영양군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조정위원회에는 외부민원 조정위원 5명, 종합민원과장, 고충민원 주무부서장인 기획예산실장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참석위원 중 윤삼호 위원은 “적극적으로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

월 민원처리상황 보고 시 기관장에게 집단민원 접수상황을 보고 후 처리방향을 받아 민원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수인 및 집단갈등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향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준로 민원조정위원장은 “다수인·집단갈등민원 관리계획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 의견수렴으로 좀 더 효율적인

집단민원 관리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며 “앞으로 집단민원 예방 및 해소에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어린이를 찾아가는 놀이터 ‘찾놀 Free Play 버스’ 운영 ‘호응’

봉화군은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석포초등학교 40명, 춘양초등학교 60명의 유아·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놀이터‘찾놀 Free Play 버스’를 운영했다.

찾놀 Free Play 버스는 도심에서 떨어진 유아와 어린이가 있는 곳을 찾아서 자유놀이의 즐거움을 전하는 프로그램으로, 봉화군 놀이터 편해문 디자이너와 박보영 플래너의 안내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장소와 참여하는 연령에 알맞게 5가지 자유·미술·음악·만들기·팝업 놀이터로 구성됐으며, 아이들은 스스로 하고 싶은 자유놀이 속에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배울 수 있었다.

담임교사 A씨는 “교실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 했는데, 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점이 좋았다.”라고 말했다.

다른 담임교사 B씨는 “깊은 산속 학교라 프로그램을 접하기 쉽지 않은데, 직접 방문해서 진행해 주셔서 정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어린이의 건강한 놀이문화 형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편해문, 박보영 놀이터 디자이너 및 각 기관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안전한 놀

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찾놀 Free Play 버스’는 오는 7월 14일, 17일 이틀간 봉화군민회관에서

윤근수/기자



안동 주독일 한국문화원, 베아토 예술인협회 독일 공연

주독일 한국문화원은 6월 23일 문화원 공연장에서 한독수교140주년 기념으로 한국 인문학을 음악으로 승화시켜 창작극으로 융합한 색다른 개념의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30일 전했다.

한국 경상북도 유네스코의 성지인 경복, 안동을 소재로한 조선후기한국여인의 삶과 시(詩) 등 인문학적 스토리에 국악과 성악을 입혀 창작극으로 표현한 이번 작품은 현지의 높아진 한국문화 눈높이에 맞춰 한국문화원이 ‘베아토 예술인협회’와 협업하여 새롭게 선보인 공연이다.

한국문화예술연합회, 종로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세계유산센터, 윤동주 문학제 등 작품공모로 널리 알려진 이번 공연은 진보되어가는 K-클래식, 한국 젊은 예술가들이 유럽과

한국을 잇는 또다른 K-Art의 예술혁명으로 유럽에서 공부를 마치고 현지에서 우리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존된 예술색채를 역으로 유럽시장에 알리는 의미와 가치를 둔 공연이었다.

특히 세계무형문화재 기록유산 한국여인의 삶을 기록한 ‘내방가사’ ‘해도사교거’ 등 가야금병창으로 승화시킨 작품이 세계 초연으로 연주되어 많은 독일인들에게 감동과 찬사를 받았으며 공연장을 찾은 현지 독일인들은 한국인들에게조차 다소 낯선 장르의 이 공연에 깊이 빠져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순수문학, 예술에 대한 독일인들의 각별한 애정이 반영된 결과”라고 문화원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전체 작품을 맡은 베아토예술인협회 대표 권성화는 예술가로서 향후 광

산갈은 경북지역 문화재 문헌 및 우리의 문화를 바탕으로 토탈아트로 창작 작업하여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유산을 음악을 통해 세계 널리 알리며 한국의 클래식을 기반한 진보된 K-클래식의 우수성을 확충하여 나아가길 것을 다짐했다.

이번 공연은 베아토예술인협회 전문예술가들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원, 이화여자대학원 학생, 현지 독일 베를린 라디오 방송합창단원의 콜라보로 진행되며 총예술클러스 임재현, 전체 작곡 및 피아노 권성화, 가야금병창 천새롬, 해금 김은지, 소프라노 장은수, 메조소프라노 윤소은, 테너 신주환, 김상진의 무대로 연주됐다.

세계유산추진, 윤동주 문학제 등에도 이미 선보인 이번 작품은 총 3부로 구성됐는데, 제1부는 ‘님 그리다’를 주제로 윤동주와 이육사의 저항시를, 제2부는 세계 초연 조선시대 여성의 삶을 보여주는 ‘내방가사’를, 마지막 제 3부에서는 선비의 삶을 그린 ‘풍류병산’을 주제로 국악퓨전 음악으로 이루어졌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 올해 대폭 확대

17개 시군 제조 중소기업 대상 최대 5백만원 지원



경북도는 지역 내수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17개 시군(포항, 경주,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영양,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82.3으로 전년 동월(86.1)대비 3.8p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이어 지역 경기가 지속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북도는 지역경제 상황과 중소기업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지난해에 이어 2023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경북도 17개 시군의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2022년) 표준재무제표(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상 운반비(항



목) 합산 금액의 10%를 지원하며, 기업 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특히, 올해 사업량은 지난해 173개사 대비 대폭 확대해 약 540여 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최초 시행한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결과 200개사 모집에 511개사가 신청해 2.6:1의 경쟁률로 높은 인기를 끌었으며,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173개사를 선정 지원한 바 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2023 경상북도 국내 물류비 지원원(http://sos2.jobforu.co.kr)" 사이트를 통해 12~25일 18:00까지 접수하면 된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계속되는 소비저물기 및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역 경기 전망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류비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한울본부, 이세용 신임 본부장 취임

안전한 원전 운영 및 지역사회와의 화합과 소통 당부 이세용 본부장, "행복한 일터, 즐거운 한울본부가 돼, 노·경이 함께 노력할 것"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지난 4일, 이세용 신임 본부장이 취임하여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세용 본부장은 "전 직원이 안전책임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신한울3,4호기 건설 등 중요한 현안은 지역과 신뢰 구축 및 화합을 통해 해결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진정한 소통과 존중을 바탕으로 행복한 일터, 즐거운 한울본부가 되도록 노·경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세용 본부장은 1991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해 감사실 일상감사팀장, 서울 2발전소장, 발전처장 등 발전소와 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감각 및 관리 능력을 두루 갖추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한울본부 차소장급 주요간부에 대한 보직 인사를 단행해, ▲제3발전소장에 서우환, ▲신한울제1건설소장에 이희재씨를 각각 보임시켰다. 참고로, 이세용(李世用) 한울원자력본부장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이세용(李世用) 한울원자력본부장은 1967년생으로 부산출신이며, 학력은 부산대 물리학과 졸업(1989년), 숭실대학교 경영학 석사(2018년),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박사(2022년)가 있다. 주요 경력은 1991년 한국전력공사 인사, 2011년 고리본부 신고리제1발전소 시운전발전팀장, 2014년 감사실 일상감사팀장, 2017년 한빛본부 제2발전소 운영실장, 2020년 새울본부 제2발전소장, 2022년 발전본부 발전처장을 역임후, 지난 7월부터 한울원자력본부장직에 취임했다. 기간중 신임 이세용 본부장은 2019년 신고리3,4호기 종합 준공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2013년 전력계통안전운영 유공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윤근수/기자

대구형 메타버스 대시민서비스 '메타버스 대구월드' 추진

'메타버스 대구월드 조성 사업' 공모 평가결과 3개 기업 선정 7월부터 지역 특화산업 활용한 대구형 메타버스 대시민 서비스 개발 추진

대구광역시 지역 고유자산/특화산업 등을 활용, 대구시민의 특색있는 산업융합형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메타버스 대구월드 조성사업'에 3개 기업을 선정, 본격 추진한다. '메타버스 대구월드 조성 사업'은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메타버스 대시민 서비스 구축에 관심 있는 기관(기업)들의 수요에 대응해, 지역의 우수한 메타버스 전문기업과 협업하여 지역특화 산업융합형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공공기관 대상 산업융합형 메타버스 서비스 수요 조사를 실시해 특화된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수요가 높은 공공기관 2곳(대구시 교육협력정책관, 시민안전테마파크)을 선정했다. 또한,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메타버스 구축에 대한 수요도 고려하여 의료 분야를 선정, 총 3분야의 메타버스 서비스 구축을 지원한다. 사업 수행기관인 (재)대구테크노파크를 통해 지난 5월 25일 사업공고를 진행하여 역량을 갖춘 메타버스 전문기업을 공개모집했고, 발표평가를 통해 8개 기업 중 3개 기업을 최

종 선정했다. 사업 차별성, 콘텐츠 우수성 및 사업역량 등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알엔웨어는 시민안전테마파크를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지역특화 메타버스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실제 시민안전테마파크 공간을 메타버스로 구현해 재난·안전 교육의 가상화/온라인 교육에 게임과 같은 재미 요소를 도입해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며, ▲(주)YH데이터베이스는 통합형 대구도서관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작한다.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달성군립 도서관, 동구안심도서관, 수성구립범어도서관 각각이 보유한 특징적 공간들을 메타버스로 구현해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대구시 도서관 통합에서 나아가 전국 최초 통합 도서관 메타버스 플랫폼 구현을 계획 중이고, ▲(주)인더텍(참여:경북대)컨소시엄은 인지장애 환자의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보조를 위한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작해 실증할 계획이다. 치매예방군, 경도인지장애, 치매



한자 대상의 인지재활 훈련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작해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실증을 수행한다. 본 사업으로 디지털 인지치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와 메타버스의 산업 간 융합으로 양 산업 간 동반 상승효과를 낼 예정이다. 한편, 선정된 기업은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에 관한 지원을 받으며, 사업을 통해 다양한 대구 지식재산을 활용, 대구형 메타버스 월드 구축과 동시에 지역 메타버스 전문기업의 콘텐츠 기획력을 육성해 정부 주도의 민간 자율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류동현 대구광역시 AI블록체인과장은 "이번 대구월드 사업을 통해 기존 공공영역에 메타버스 적용 가능한 영역을 발굴하고, 대구시의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를 서비스하여 대시민 서비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메타버스 전문기업의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능력 및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문경 여긴 어때? 자외선 걱정 없이 즐기는 돌리네습지 투어

더 재밌어진 스탬프 투어와 화사한 우산으로 새단장 완료

문경시는 문경돌리네습지를 방문하는 탐방객들을 위해 '돌리네습지 투어' 및 '우산 대여 서비스'를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돌리네습지 투어'는 습지를 알차게 둘러볼 수 있는 가이드 역할과 함께 습지의 아름다운 경관과 생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스탬프 투어와 포스팅 투어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스탬프 투어는 습지 탐방로 곳곳에 설치된 일곱 개의 글자조형물을 찾아 비치된 스탬프를 리플렛에 찍어 글자퍼즐을 완성하면 된다. 포스팅 투어는 습지를 둘러보고 나만의 포토존에서 방문 인증샷을 찍어 자신의 SNS계정에 포스팅을 하면 된다. 각 투어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안내소에서 문경돌리네습지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산 대여 서비스' 시행으로 여름철 습지 탐방 시 뜨거운 햇볕이나 갑작스런 소나기로 불편을 겪은 탐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4가지 색상, 4가지 크기의 우산을 이용해 자신만의 인증샷도 남길 수 있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연복 환경보호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무더운 여름에 습지를 찾는 탐방객들이 특별한 매력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올해부터 서울시 넥스트로컬 참여, '서울청년들 환영'

박남서 영주시장 발대식 참석... "영주 관계인구 증가 기회" 10개 팀 영주지역 자원 조사하며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영주시와 서울 청년들의 상생·성장을 위한 힘찬 동행이 시작됐다. 지난 5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영주시를 포함한 전국 10개 지자체가 함께하는 '제5기 넥스트로컬'이 지난 4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넥스트로컬 사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꿈꾸는 서울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단계 지원에 총 63개 팀이 선정됐다. 이 중 10개 팀, 17명이 하반기 영주에서 지역 자원 조사 활동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선배 창업팀들의 팝업 전시와 성공사례 발표, 지난 4년간의 사업성과 보고, 자치단체장들의 응원과 격려가 이어졌다. 올해 처음으로 넥스트로컬 사업에 참여하는 영주시는 서울 청년들과 매

서울시는 창업가로서의 자질과 지역성, 사업성, 지속가능성, 참여 태도 등을 평가해 사업모델이 검증된 15개 내외의 팀에겐 최대 5천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지역과 상생하는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경북도는 지난 5일, 경산 아트라운 컨벤션센터에서 경상북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회장 김용재) 주관으로 기관·단체장과 시군 평생교육지도자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경상북도 평생교육지도자 협의회 평생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평생교육 컨퍼런스는 지역 현장에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평생교육지도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군 간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해 효과적인 평생학습 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변화의 시작! 경북도 평생교육, 평생교육지도자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시군 협의회 평생교육 부스 운영(10개 시군) ▲평생학습 동아리 공연(화관무, 에어로빅댄스) ▲마을 평생교육 유공자 시상식 ▲마을 평생교육 활동사례 발표 ▲한세대학교 안종배 교수 「챗 GPT 인공지능 특성과 평생교육 활용 방안」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평생교육 저변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마을 평생교육 유공자 16명에게 도지사 표창(6명)과 도 교육감상(6명), 도의회 의장상(4명)을 수여했다.

경산시협의회와 의성군협의회에서는 마을 평생교육 활동사례를 대표로 발표했다. 경산시는 "경산시 평생교육은 우리끼리!"라는 주제로 건강하 뇌 만들기 사랑방, 자인단오제와 버스킹, 경산시 재능 나눔 박람회 등을 활동사례로 소개했다.

의성군은 "평생교육이라고 쓰고 배움의 시간이라고 읽습니다"라는 주제로 경로당 한글교실, 문해강사 스터디 등 문

해교육사업을 중심으로 성과와 노하우를 소개했다.

안종배 교수의 특강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주고 있는 인공지능(AI)과 관련해 챗 GPT-4 인공지능 특성에 대한 설명과 평생교육 분야에서의 활용 방안 및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편, 경상북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는 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을 통해 연간 400여 명의 평생교육지도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22개 시군, 2천936명의 회원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사회변동성이 커지고 습득해야 할 지식과 정보의 양이 폭증함에 따라 삶과 학습을 하나로 이어주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평생교육 현장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지도자 여러분께서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평생교육 컨퍼런스 열고 평생학습 노하우 공유 경북평생교육지도자, 지역과 성장하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예천군, 대표 여름 축제 '예천 버블런' 참가자 사전 모집

이달 13일까지 선착순 1,000명 모집! 서두르세요~
14일 전야제, 15일 패밀리파크 물놀이장 옆 잔디광장에서 개최



에서 처음 개최했으며 약 1,500명이 참가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패밀리파크 물놀이장' 개장을 기념해 오는 14일 저녁 7시 전야제 공연을 시작으로 15일 오전 9시부터 패밀리파크 물놀이장 옆 잔디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전야제 공연은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행사는 참가자 안전을 위해 사전 신청한 참가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예정이던 전야제 공연은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정석기 도시과장은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예천 버블런 축제를 올해는 무더운 여름 주민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패밀리파크 물놀이장 개장에 맞춰 개최한다."며 "주소와 연령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예천 버블런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예천군은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대표 여름 축제인 '예천 버블런' 참가자 1,000명을 사전 모집한다. 국내에서 최초로 버블존에서 진행되는 건강달리기 행사인 '예천 버블런'은 지난해 호명면 경북도청 신도시 송평천 일원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울진사랑카드 인센티브 미지급

울진군, 7월 31일부터 울진사랑카드 가맹점 개편



울진군은 오는 31일부터 울진사랑카드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의 경우 캐시백 지급을 중단한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농협과 축협을 포함해 대형병원,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를 확인하고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을 개편했다. 지침에 따라, 군은 연 매출액 30억 초과 사업체에 대해 가맹점 개편 사전 안내 및 이의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해야 하나,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캐시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매년 매출액을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가맹점을 관리할 예정이다.

연 매출액은 개인이나 법인의 모든 사업장을 합산하여 사업장 단위가 아닌 소유주 단위로 판단하며,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장대근 일자리경제과장은 "개편 대상이 울진군 전체 가맹점의 1.4%에 불과하지만, 초기 가맹점 개편으로 군민 여러분이 혼란과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진군은 울진사랑카드 캐시백 혜택이 더 많은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장문화/기자

의성군, 23년 산불방지 우수기관평가 장려 수상

김주수 의성군수, "산불예방으로 산림자원 보호에 선을 다하겠다" 밝혀



의성군은 이번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2023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군은 『산불 없는 맑고 푸른 의성 만들기』라는 슬로건 아래 전 공직자에 의한 산불예방 책임 담당구역 관제를 지정·운영하고 150여명의 지상진화 및 감시인력을 활용해 물 쉼 없는 감시에 총력 대응했으며, 산불 발생 취약시간/접근 제한지역에는 헬기를 이용한 공중계도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을 뿐만 아니라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소각 등 산불로 번질 여러 사례들을 지역주민들에게 고지하고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SMS 문자

서비스 등 다양한 산불예방 활동을 추진하였다.

특히, 소각산불에 대한 위험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 및 소각행위 적발에 대한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소각산불 발생 0건을 달성하여 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수상에 대해 공무원, 진화대원, 감시원 등이 산불방지를 위해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산림보호를 위해 애써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산불예방으로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규모는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

강소농 경영개선교육 17명 수료

청송군은 지난 6월 3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소농 경영개선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강소농 경영개선교육"은 농산물 마케팅전략, 소비트렌드 분석, SNS 채널별 온라인 마케팅 실무교육, 농산물 유통 마케팅의 이해, 네이버기반 농산물 판매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 활용법 등 농가가 직접 경영의 주체가 되는 경영컨설팅과 판매전략에 대한 교육으로, 전체 17회 교육 중 14회 이상을 이수해야만 수료가 되며 올해는 총 21명 중 17명이 수료했다.

규모는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를 달성하자는 취지의 중소규모 농업경영체인 강소농은 2012년부터 시작하여 청송군에서만 381명을 육성했다. 이들은 농업혁신과 자립역량을 갖춘 자들로 단순히 소농이 아닌, 농업경영의 주체자이다.

청송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강소농 육성과 교육뿐만 아니라 농업인 학습단체 육

성, 농업인대학, 청송사과사관학교, 귀농·귀촌교육,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 교육 등 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 수준 높은 교육 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문화재단2023 영남 문화예술교육 대축전 열어

영남권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예술교육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7월 6일(목) ~ 7일(금) 부산 호메르스 호텔에서 영남 문화예술교육 축전이 열린다.

이번 축전에서 경북을 포함한 경남, 대구, 부산, 울산 5개 영남권 광역 문화예술교육 직권과 2023 지원사업 선정 단체가 한자리에 참여한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영남권 문화예술관광 발전에 대한 MOU 체결을 시작으로 양일간 축전이 진행된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예술가들의 의견수렴을 위

한 지역 현장 활동가들의 테이블 토크 등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단체의 실질적 교류 활동이 있을 예정이다.

구윤철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영남 문화예술교육 축전을 통해 영남권 문화예술교육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문화예술교육 우수 콘텐츠 성장에 앞장설 수 있도록 성공적인 예술문화교육 축전이 개최될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3 영남 문화예술교육 축전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며 경북문화재단 SNS 및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근수/기자



부산 남구, “내 발로 찾아가는 엑스포 홍보”이벤트

엑스포 인증샷 찍고 종량제 봉투 받아요!!

부산 남구는 ‘내 발로 찾아가는 엑스포 홍보’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확산·고조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내 명소 및 국내·외 전역에서 홍보 인증샷을 촬영하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로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벤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남구청 미래성장담당관(5층)을 방문, 엑스포 홍보 타월 수령 후 관내 명소 및 국내·외에서 촬영 한 홍보 인증샷을 제출하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기념품은 인증샷 5장 이상인 경우는

남구 종량제봉투(10ℓ) 10장이 지급되며, 인증샷 5장 이상과 SNS 업로드를 할 경우 남구 종량제봉투(10ℓ) 15장 또는 남구 캐릭터 망고 인형 1개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망고 캐릭터 인형은 7.20. 이후 수령 가능)

인증샷은 남구 관내의 경우 지정된 명소에서 촬영한 것만 인정되며, 타시도 및 해외의 경우는 특정하지 않고 어디든 가능하다. 다만 부산 시내 타 구·군 인증샷은 제외되며 이벤트는 기념품 소진시까지 진행된다. 문의는 남구청 미래성장담당관로 하면 된다.

송종진/기자



김광열 영덕군수, 귀촌 청년과 ‘소통의 날’ 개최

귀촌 청년 상설 소통창구, 영덕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본부에 개설



김광열 영덕군수는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지난 3일 청년 커뮤니티 공간인 영해면 ‘다오소 오피스’에서 지역으로 귀촌한 문화예술기획, 여행 매니저먼트, 요식업 분야의 청년대표 6명을 만나 ‘현장 소통의 날’ 간담회를 가졌다.

귀촌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영덕의 매

력에 이끌려 왔기에 지역사회의 변화와 성장을 지지한다. 주민과 긴밀히 관계 맺으며 공동체와 공생을 도모하면서 수익모델을 찾는다. 하지만 외지인으로서 겪는 고충은 있기 마련. 청년들과 김 군수는 서로의 지향점을 공유하며 애로사항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두박마을은 국가 공모사업과 연계해 영덕의 대표적인 명소인 블루로드를 트래킹 상품으로 발굴해왔고 직면도 8명으로 늘었다. 설동원 대표는 늘어난 역할에 맞춰 지원만 충분하다면 블루로드를 전국적인 여행상품으로 브랜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덕청년문화협동조합은 영덕대게축제 등 여러 행사에서 주민과 활발히 교류하며 수준 높은 퍼포먼스와 기발한 예술 프로그램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조합 이사들은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과 더 많은 청년 예술가가 머물 수 있는 유류 공간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요식 분야의 청년대표들은 창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따른다며 청년 창업가를 1:1로 도와주는 멘토-멘티 프로그램, 지역사회의 이해를 돕는 현장 체험 프로그램 등을 건의했다. 도시 못지않은 상가 임대료와 리모델링 비용 등에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김 군수는 “귀촌 청년의 안착은 미래 영덕의 시금석이다. 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가와 도에서 시행하는 청년 사업이 더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부서장들이 적극 행정의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2023년 가족한마당, 청송군에서 성대히 열려

청송군은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2023년 가족한마당 행사가 지난 7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 동안 청송국민체육센터와 민예촌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업·농촌·농민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고자 경북 15개 시군에서 600여 명의 농민회 회원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농자재비·인건비 폭등과 냉해, 서리, 우박 등 기후 이상으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로 농민의 근심이 더해 가는 상황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의장 김태현)은 지속 가능한 농업, 농민도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를 돌보며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갖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가족한마당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문화체험마당으로 아로마오일 썬크림 만들기, 캐리커처 그리기,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으며, 홍보마당으로 농업정책 홍보물 배부, 참여한 가족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에어바운스 물놀이장이 운영됐다. 또 아간에는 매직비누 방울쇼, 마당극 공연, 노래패 맥박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도 열렸다.

김태현 의장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국민 먹거리를 위협하는 CPPTP 가입을 추진하는 것에 우려와 반대를 밝힌다.”며 “청송군농민회와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데 대하여 너무 감사하며, 특히, 행사개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윤경희 청송군수님께도 경북도연맹 전체 회원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경희 청송군수는 축사를 통해 “농업·농민이 1등 되는 대한민국 농업농촌이 될 수 있도록 청송군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1박 2일 청송에 머무시는 동안 농사일로 쌓였던 근심과 걱정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서로가 힘이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남해군 ‘집중호우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수거’ 총력

남해군은 최근 집중호우로 섬진강에서 관내 설천면·고현면·서면·남면 해역으로 많은 양의 초목류와 생활 쓰레기 등이 유입됨에 따라 이를 수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남해군은 각 어촌계에 집중호우로 해양에 유입된 쓰레기를 한 곳으로 모으도록 요청하는 한편 해양유입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굴삭기, 수거차량 등을 투입하고 있다.

해양으로 유입된 섬진강하구 쓰레기로 인한 어업인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읍면에 배치된 바다환경지킴이를 활용하는 등 쓰레기 수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장마기간이 길어지고 집중호우 횡수가 많아짐에 따라 육지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량도 많아 질 것으로 예상돼 남해군에서는 쓰레기 처리

에 대한 대책마련과 동시에 해안지역 어업인들과 협력해 유입된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장중남 군수는 7월 2일 현장을 방문해 해양 유입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고생하는 주민들과 관계공무원들을 격려하면서, “집중호우로 섬진강에서 방류한 방류수로 인하여 섬진강 하구 유역의 쓰레기가 우리군 해안으로 대량 유입되었지만, 신속히 수거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환경부 및 수자원공사에서 강 하구 쓰레기 해양유입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준/기자



통영의 맛과 멋이 담긴 정성가득 향토요리 체험

통영시는 꿈이랑도서관에서는 지난 4일 오전 10시 2023년 경남대표도서관 문화누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영음식문화 이야기” 강좌를 운영했다.

“문화누리”사업은 경남대표도서관에서 도내 공공도서관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꿈이랑도서관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문화누리 사업에 선정되어 지역특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통영백미”의 저자 통영음식문화연구소 이상희 대표가 강의를 맡아 첫날 이론수업에 이어 수강생들과 함께 개조개를 활용하여 통영

의 별미요리 개조개요리를 만들어 보았다.

강좌는 8월 1일까지 6주간 운영된다. 남은 기간 동안 수강생들은 싱싱한 제철재료를 활용하여 추무김밥, 너물비빔밥, 통영도미찜, 통영약과 등 통영의 역사와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향토요리를 실습해 볼 예정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강좌가 우리고장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체험을 통해 향토음식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리고 지역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이 됐으면 한다”며 “하반기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통영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다채로운 지역특화프로그램도 기획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용준/기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NFT 제작지원 사업 공모

디지털화가 가능한 기창작 예술작품 대상
각 1백만원, NFT 70건 제작 지원 예정
10월까지 NFT 발행 완료 후 11월 중 작품전시회 개최 예정

2023 문화와 ABB결합지원
ABB(AI, 빅데이터, 블록체인)

NFT 제작지원 사업 모집공고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지역 예술계의 소비와 유통을 확장하고 글로벌로 확대하고자 <NFT 제작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명** 2023 문화와 ABB결합지원 <NFT 제작지원 사업>
- 지원대상** 공모일 기준 대구광역시내에 소재하는 전문예술단체 및 전문예술인
- 지원내용** 기창작된 실물작품의 NFT화를 위한 직접경비(1백만원) 지원
- 접수기간** 2023. 6. 29.(목) ~ 7. 31.(금) 18:00까지
- 접수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온라인 접수
- 문의처**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예술진흥팀 T. 430-1242, 1247

NFT에 관심있다면 지금 바로!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세부 내용은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게시를 참조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 본부는 지역 예술계의 소비와 유통을 확장하고 글로벌로 확대하고자 ‘NFT 제작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7월 31일(월)까지 접수받는다.

‘NFT 제작지원 사업’은 ‘문화와 ABB(AI, 블록체인, 빅데이터) 결합지원’ 사업의 하나로, 급변하는 미래예술 환경 변화에 맞춰 예술인들이 NFT라는 새로운 디지털 예술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제작물의 저작권을 가진 지역에 소재(거주)하는 전문예술단체 및 전문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 등 기초예술 분야에 걸쳐 신청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기창작된 실물작품의 디지털아트 제작 및 NFT 발행 관련 직접경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1백만원이며 NFT 제작경비 및 소요기간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작품 건수는 선정 후 조율 가능하다.

윤근수/기자



강원도, 여름철 축산농가재해대비 이렇게 하세요!

기상청, 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날씨 예보 확인 및 재난 문자 상시 주의

최근 기상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7, 8월의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로 전망되며, 다양한 기후요소에 의해 가축 고온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폭염이나, 축사시설 파손 및 침수 피해를 일으키는 태풍·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축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축사 내·외부 환경조절 시설 설치,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 시 피해 상황 파악 및 복구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산분야 여름철 재해 피해 대응계획 수립 ▲ 및 ▲여름철 재해 대책 상황반 ▲을 운영한다.

축산농가가 조치해야 할 요령으로는 우선 정부 기상안내에 상시 주의를 기울이며, 폭염 경보 시에는 ○ 송풍기, 환기팬 작동 ○ 차광막 설치 및 축사 지붕 물 뿌리기 ○ 시원한 물 급여, 사료 급여 횟수 늘리기, 태풍과 집중호

우 경보 시에는 ○ 노후축사·간이축사 버팀 지지 설치 및 취약부분 보강 ○ 축사주변 배수로 정비 및 수방자재 설치 등 각종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은 매년 발생하는 폭염·태풍 등 각종 여름철 재해 위험으로부터 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사전대비·사후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등원/기자



태백시, '서민 경제 지킴이'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 실시

태백시는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를 갖고 물가점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는 △물가조사 지침 및 물가정보 제공 방안 교육 △물가조사 대상지 및 품목 조정 의견수렴 △점검 시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 물가조사 지침 주요 변경사항은 조사 품목에서 양념류가 삭제되고 입수산물이 추가되어 기존 6개 분야 116개 품목에서 120개 품목으로 변경됐고, 가격변동 주기가 적은 품목 조사주기가 조정됐다. 또한, 명절 성수품 물가 기준 12개 품목에서 밤, 대추, 조기, 명대 4개

품목이 추가되어 16개 품목이 됐다.

모니터요원이 파악한 물가 동향은 매주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태백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야별정보'생활/환경'생활경제'물가정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관내 물가 안정과 소비자 중심의 자율적인 물가 관리에 힘써주고 계신 모니터요원에 감사드리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물가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애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향후 현장의 물가 동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유성근/기자



충남도, 중국 지방정부 협력 강화, 투자유치 등 실리 외교 '성과'

김태흠 지사, 지역외교 정상화 및 이차전지 등 2개 기업 4800만 달러 유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자매결연 등으로 인연을 맺은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확대는 물론 현지 기업으로부터 4800만 달러(625억 원)의 외자를 유치하며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5일 도에 따르면 김태흠 지사는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7박 8일간 중국 베이징, 청두, 시안, 상하이, 항저우를 차례로 방문해 코로나19로 막혔던 지역외교를 정상화 시키고, 새로운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귀국했다.

이번 중국 순방 키워드는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 구축과 '실리 외교'로 압축된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30일 자매결연 5주년을 맞은 쓰촨성, 3일 우호교류 15주년을 맞은 상하이시를 방문해 황치양 쓰촨성장과 궁정 상하이시장을 만나 교류·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우정을 재확인

한 김 지사는 황치양 쓰촨성장과 궁정 상하이시장에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교류하지 않으면 멀어진다"며 "교류 확대를 통해 양 지역의 발전을 넘어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외교적인 부분에서 모범이 되자"고 계속해서 강조했다.

이러한 김 지사의 의지는 최근 한-중간 다소 경직된 관계 속에서도 쓰촨성과 환경·스포츠·유교·대학 분야 교류 활성화를, 상하이시와는 수소산업 육성 및 투자·통상, 관광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를 이끌어 내며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특히, 황치양 쓰촨성장은 접견에서 "도와 쓰촨은 제조업 분야 강자 연합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조업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해 보자"고 먼저 제안해 두 지역의 협력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김 지사는 이번 순방에서 일본에 이어 2023 대백제전과 금산세계인삼축제 등 충남의 메가 이벤트를 중국 5개 지역에 홍보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발판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는 중국 출장 7일차인 지난 3일 상하이 훙차오원더무 호텔에서 '충남 관광 설명회'를 열고, 대백제전 등 대표 축제를 비롯해 사계절 여행 상품을 직접 홍보하며 현지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이와 함께 쓰촨성과의 자매결연 5주년 기념식에 앞서 청두시 천극원에서 열린 한-중 합동공연에서는 쓰촨성 문화·유전 관계자와 청두 시민과 교민 등 450여 명 앞에 백제 전통 의상을 입고 직접 무대에 올라 대백제전을 홍보하는 열의를 보였다.

아울러, 주요 인사와의 접견 및 베이

징 주재 한국경제단체, 현지 한국 언론 특파원과의 간담회 등 자리가 있을 때마다 충남의 메가 이벤트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외자유치도 빼 놓을 수 없는 성과 중 하나이다. 5월 일본 출장에서 최첨단 자동차 기업을 통한 4000만 달러에 이어 이번 중국 출장에서는 세계적인 스마트폴 기업과 이차전지 제조 설비 기업으로부터 각각 1000만 달러와 38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실리도 챙겼다.

이번 협약에 따라 스마트폴 기업 엠버 스트러처는 5년 이내에 당진 송산 2-1 외국인투자지역 내 3만 3536.2㎡ 부지에 외국인 투자금액 10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230억원을 공장 건설에 투입한다.

이차전지 제조 설비 기업인 항커터 크놀로지도 5년 이내에 3800만 달러를 투입해 부여 은산2 농공단지 내 4만 9769.5㎡ 부지에 리튬이온배터리 총방진 설비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국 순방 4일차인 지난달 30일에는 '2023 충청권 세계에게대 학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청두 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를 방문, 그동안 대회 준비과정 등을 벤치마킹하고, 3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루쉰(홍커우)공원 내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찾아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이번 순방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순방을 통해 그동안 멈췄던 도와 중국 지방정부 간 관계 정상화는 물론 625억원 규모의 외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중국 지방정부와 실리 외교에 기반한 교류협력 관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원강수 원주시장, 원주시니어클럽 방문...소통 행보 나서

원강수 원주시장은 4일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원주 시니어클럽을 방문하여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 방안을 마련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원주시니어클럽은 2009년 설립된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으로 15년 동안 주도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이끌어 왔다.

현재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

형 등 29개 사업단 4,636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100세 시대, 일하는 노인,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경제 분야에서의 노인들의 역할 증대 및 소득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천안시, 24일까지 농산물 가공창업 기술교육 하반기 교육생 모집

이론·실습교육, 시연 현장 경험으로 구성

천안시농업기술센터가 오는 24일까지 '농산물 가공창업 기술교육' 하반기 교육생 30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산물 가공창업 기술교육 기초반과 심화반을 별도 운영하던 기존의 교육과 달리 통합반으로 운영된다.

농업인의 농외소득원 확보를 위한 지역 농특산물 가공기술 교육으로 오는 31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주 월·수요일에 진행된다.

식품가공과 관련된 이론교육 7회차, 직접 가공제품을 만들어보는 실습교육 2회차, 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시연 현장 견학 1회차로 운영된다. 1회별 4시간씩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 장소는 천안시농업기술센터이다.

이론교육은 ▲식품가공 기본 다지기 ▲지역농산물 활용 부가가치 창출 방안 ▲내 상품 노출전략 ▲식품위생 관련 법규 ▲농산물 가공창업 인허가 절차 ▲세무관리 전략 ▲농업인 가공사업체 운영 방안 등이다.

실습교육은 ▲착즙 가공품과 건조 가공품의 이해 ▲당첨임 가공품의 이해로 구성됐으며 마지막 차수에는 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시연 현장 견학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이용 자격이 부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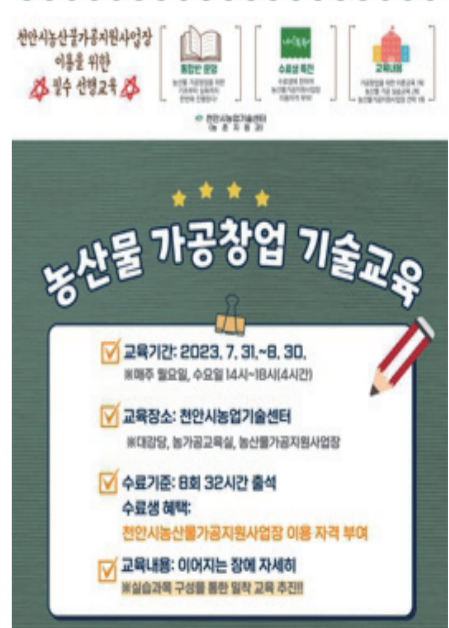
교육신청은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교육 공고일 기준 천안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교육접수는 신청서와 주소지 증빙서

류를 첨부해 대면 혹은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농촌지원과 농촌자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원호/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시민이 시정의 주인 되는 참여자치 구현할 것"

박경귀 시장, 자치분권포럼 발표자로 나서 아산시 우수사례 발표

박경귀 아산시장이 4일 광명시 아이박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4회 광명 자치분권포럼 '주민자치 아리랑'에서 아산시의 자치분권 우수 사례 발표와 함께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제4회 광명 자치분권포럼은 광명시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장, 자치분권 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지방정부의 우수 자치분권 사례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현안을 논의하는 행사다.

이날 박경귀 시장은 1부 자치분권 포럼 발표자로 나서 '참여자치로 구현하는 행복도시 아산'을 주제로 직접민주주의와 참여자치에 대한 행정학자로서의 소신을 밝히고, 시장 취임 후 시민 의견이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어떤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는지 소개했다.

박 시장은 "참여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여러 지자체에 존재하지만, 아산시의 경우 시민의 문제를 시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시민 주도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기능을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마을의 문제는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실질적 참여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고, 시민사회의 이

해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면서 "출발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지만, 대다수 시민은 뜨거운 참여 열기로 호응해 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0명의 시민 참여자치위원을 뽑을 때 779명의 시민이 자원했고,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려면 6시간의 주민자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약 1700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박 시장은 "시민들의 뜨거운 참여 열기는 곧, 직접민주주의와 참여자치에 대한 그간의 갈증이자, 새 시대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아산시는 시민이 시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도 소통 강화를 위한 △시민 소통 전담부서 신설 △시장과 시민 직접 소통 창구 운영 △카카오톡 생활불편민원 신고 채널 운영 △열린시장살 운영 △유연동 별 열린간담회 등을 소개해 현장의 큰 호응을 받았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박승원 광명시장은 "박경귀 시장님은 자

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계신데, 행정학박사로서 참여자치에 대해 오랜 시간 연구하고, 이를 현실 정치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박승원 시장은 "'주민자치 아리랑'이라는

김원호/기자



김원호/기자

경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착공



경북도는 지난 5일, 이달희 경제부지사, 김희국 국회의원, 김광열 영덕군수, 도.군의원, 산업 통상자원부/유관기관 관계자와 관련기업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에 위치한 제2농공단지에서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2018년 6월 특별법 시행으로 지역에 특화된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 지원 등 기술혁신을 통해 지역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6개소(경

북, 전북, 광주.전남, 충북, 경남, 부산, 울산)가 지정됐다.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지역의 강점인 풍력산업과 연관 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기업지원, 산학연 네트워크 등을 통해 풍력산업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2020년 8월 16일 영덕읍 중심으로 10.47km² 면적이 산업부 고시로 지정되면서 추진하게 됐다.

중점추진 사업내용으로는 노후풍력 리파워링, 풍력 유지보수 산업 육성, 해상풍력발전 사업화 등 3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6개 세부사업발굴에 총 1조

1천7백억원을 투입해 풍력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착공하는 종합지원센터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16개 세부사업 중 하나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북도, 영덕군에서 총사업비 190억원(국비 76, 도비 57, 군비 57)을 투입해, 건축면적 8,300m²(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본부동과 실습동 2개동으로 신축되며 2024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종합지원센터 주요기능은 지역 특화 기업 육성 및 지원, 기술개발 및 인재양

풍력산업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및 현장 전문인력 양성 지역 풍력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성 등 풍력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한 핵심거점 공간으로 지역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본부동은 홍보전시실, 기업 임대 사무실, 창업보육공간, 회의실, 풍력단지관제실 등 기업 활동과 지원 공간으로 사용되며, 실습동은 풍력 유지보수 현장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교육시설로 운영해 기술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종합지원센터는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득했고,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등 신재생에너지설비와 고효율기기 사용을 반영해 친환경적이고 에너지절약형의 건축물로 건립된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풍력은 미래를 주도할 신성장 에너지산업이 될 것이며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풍력산업을 경북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경북도는 원자력소수/SMR특화 국가산단과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조성 등 에너지 분권 실현에 주도적 역할과 대한민국 에너지안보 및 친환경에너지 확산에 선도적 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원어민 선생님에게 배우면 영어 실력 쑥쑥" 종로 초중생 영어캠프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연수 대체할 수 있는 10회차 통학형 프로그램

성균관대학교와 함께하는 2023 종로구 여름방학 영어인성 캠프 참가자 모집

원어민과 선생님께 배우는 영어 여행! Around the World

From / Australia / USA / Germany / Japan / Spain / Thailand / Japan

한국어와 초연한 외국어! 안전한 해외여행 프로그램 제공!

주최 기관	2023. 7. 31 (일) ~ 8. 11 (일) / 총10회 (10대 ~ 17세)	대상	초4학년
장소	종로구세우초등학교(내내 학교 재학 중인 초등학생 5~6학년, 중학생)	비용	49만원
신청 기간	2023. 6. 30 (일) 09:00 ~ 7. 12 (수) 18:00	신청 방법	종로구청 홈페이지(www.kmgpo.g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신청 방법	종로구청 홈페이지(www.kmgpo.g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신청 방법	종로구청 홈페이지(www.kmgpo.g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문의	2023. 7. 18 (수) 17:00 종로구청 공지 (신청에 관심 있으하신 분)	문의	종로구청 홈페이지(www.kmgpo.g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종로구방학캠프 지원: 서울·수도권 49만명 중 참가자 49만명, 성별 50만명, 저소득계층 2만명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일산 그랜드프라자 안전 및 재건축 자문위원회" 출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일산 그랜드프라자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7월 4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에서는 오준환 의원의 주도하에 출범된 '일산 그랜드프라자 안전 및 재건축 자문위원회'의 출범식과 건물 현장을 둘러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일산 그랜드프라자 안전 및 재건축 자문위원회'는 오준환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및 건축디자인과, 고양시 건축디자인과, 그랜드프라자 관리단의 추천을 받은 20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사고 당시 고양시와 그랜드프라사관리단의 조치가 합당했는지 여부와 현재의 관리 방법 및 향후 대책 마련에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오준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그랜드프라자 지하 3층 주차장 기둥이 파열되고 건물주차장 입구의 일부가 함몰되어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일산 그랜드프라자 안전 및 재건축 자문위원회 출범...안전대책 마련 본격 시동

지역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은 출범식 이후 일산 그랜드프라자 현장을 둘러보며 "보고받은 내용보다 현장 상황이 더 심각하다"면서, "본 건물 및 주변 건물의 토사물 동반 지하수 유출되고 있고 건물 외부에서 통행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안전조치도 되어있지 않다"며 주변 지역의 안전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장을 둘러본 오 위원장은 "경기북부에서 유일한 안전진단 최하위인 E등급인 안전사고 위험 상황에서 고양 시민들께서 겪고 있는 불안함과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산 그랜드프라자 안전 및 재건축

자문위원회'는 7월 말 경기도 안전관리실 북부안전특별점검단, 경기도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고양시 건축정책과와 함께 2차 회의를 개최할 예



김원호/기자

종로구가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열리는 '원어민 영어캠프' 참여자를 모집한다.

관내 상명대학교, 성균관대학교가 보유한 우수 교육 노하우를 활용해 학생들의 어학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뒀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연수를 대체할 수 있는 총 10회차 과정의 통학형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

먼저 상명대학교 영어캠프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일 5교시 수업으로 진행된다. 초등생 눈높이에 맞춘 뮤지컬, 퀴즈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게 꾸몄다.

성균관대학교 프로그램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일 6교시, 50분 수업 과정으로 구성했다.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학생들이 관심 있는 국가와 직업 분야에 대한 조별 글쓰기 및 자유토론, 발표 등으로 내실 있게 운영한다.

이번 영어캠프 참여 대상은 관내 거주하거나 종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생이다. 모집 인원은 총 168명으로 상명대학교는 초등학생 98

명, 성균관대학교는 초등학교 5~6학년생 및 중학생 70명을 각각 선발할 계획이다.

수강료는 1인당 80만원이지만 구에서 비용을 차등 지원해주는 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 가능하다.

일반 가정은 40만원, 셋째아 이상 자녀녀 구민 가정은 3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종로구민 가정의 경우 종로구에서 교육비 전액을 부담한다.

참여 신청은 구청 누리집에서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 하면 된다. 전산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이달 18일 구청 누리집과 개별 문자를 통해 참여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 교육지원팀에서 안내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완화하고 수강료를 지원해줌으로써 학부모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즐거운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영어에 흥미를 갖고 자신감을 얻어가는 기회가 될 바란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Everywhere Green Life, H₂ KOGAS
KOGAS가 만들어가는 Fill · Feel · 必

KOGAS가 FEEL합니다

더 깨끗한 세상을 위한 KOGAS의 ESG
KOGAS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행복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
KOREA GAS CORPORATION

경북교육청, 학점제형 미래교육 환경 조성으로 고교학점제 대비한다

2024년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신규 도입교 선정

경북교육청은 2024년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교과교실제) 신규 도입 학교를 선정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까지 모든 일반계고에 학점제형 학교 공간을 조성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교과교실 사업을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한 공간 조성 지원 사업으로 개편해 다양한 형태의 학생 성장 교육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도입을 희망하는 6교(두호고, 포항예술고, 김천여자고, 김천예술고, 선화여자고, 북상고)는 대상교 선정에 앞서 7월에 교과교실제 추진 점검단의 현장 실사 및 심사를 거쳐게 된다.

학교 구성원의 동의와 의지, 학생들의 선택 과목 개설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현황, 학생 맞춤형 교육 활동 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교육부 우선 추천 순위를 결정한다. 선정된 학교는 실당 3,000만 원의

시설기자재비가 지원되며,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고교학점제 교육전문가와 건축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1차 4~6월, 2차 8~9월)과 사업 추진을 수시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진 중등교육과장은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복합적 기능을 가진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을 적극 지원해 변화된 학습 공간에서 학생들이 삶의 힘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남교육청, ‘지구와 건강을 지키는 식생활 실천’ 공모전

경남교육청, 포스터·표어 7월 21일까지 접수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구와 건강을 지키는 식생활 실천 공모전’을 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진행한다.

경남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채식 급식 ‘다채롭데이’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식생활 실천 공모전을 연다.

공모 주제는 ‘채식급식 다채롭데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지역 식품 섭취하기’로, 실천 방법을 포스터나 표어에 담아내면 된다.

공모전은 경남교육청 소속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포스터는 학생만 제출할 수 있고, 표어는 25자 내외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1인 1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

유상조 교육복지과장은 “공모전에 제출된 좋은 아이디어와 작품들은 식생활 교육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다”라면서 “건강한 나와 지구를 위한 식생활 문화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에도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경남교육청 누리집에서 알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교육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재현/기자

2024학년도 수능, 도내 8개 지구에서 11월 16일 실시!

8.24.(목)부터 원서접수, 73개 시험장 운영 준비에 박차
임종식 교육감, “학교 교육 충실히 받으면 풀 수 있게 수능 난이도 적정화, 모든 학생들이 충실한 학교 공부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응원하겠다”

경북교육청은 오는 11월 16일 도내 8개 지구 73개 시험장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3일(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수능의 구체적인 지침 확정됨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본격적인 수능 준비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시행세부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 수학 영역에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도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고를 수 있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적용되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다.

수능 응시원서는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고등학교 및 8개 수능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성적 통지표는

12월 8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의 모든 수험생들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수능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으면 풀 수 있도록 수능 난이도가 적정화되고 발표된 만큼 모든 학생들이 충실한 학교 공부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응원하겠다”고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 등은 경북교육청 공지사항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근수/기자



재산초, 서해 바다의 품에 흠뻑 빠지다!

환경보전체험(갯벌체험) 현장체험학습

봉화 재산초등학교는 지난 달 29일(목) - 30일(금), 1박 2일간 전교생이 함께 서해(충남 안면도)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오는 색다른 시간을 가졌다.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에서 갯벌체험을 중심으로 시행하였으며 인근의 주라기 박물관, 아일랜드 리스, 꽃지해안 공원을 다녀왔다.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다녀왔으며 사전답사를 통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전 교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서해 바다를 처음 가보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각각의 개성 있는 체험학습에 모든 학생들이 놀라워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갯벌체험 활동시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즐거운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아일랜드

리스의 숙소에서 즐거운 수영장 놀이로 학생들의 흥미도는 더욱더 높아졌다.

이 날 행사에 참여한 5학년 윤○○ 학생은 “이번 현장체험학습이 정말 재미있었고 또한 서해 바다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갯벌체험을 하면서 환경보전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런 체험학습이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본교 변갑순 교장선생님은 “모두가 즐거워하는 뜻깊은 현장체험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체험학습을 적극 계획하고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덕 야성초, 2023학년도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



영덕야성초등학교(교장 원영민)는 2023년 7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023학년도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을 운영하였다.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은 본교 3층 실과실

에서 진행됐으며, 약 20명의 학부모들이 참여했다.

해당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은 가족 공예 클래스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되었다.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신청을 받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

아 참가자를 모집하였으며 오전 10시부터 여러 가족을 살펴보고 원하는 가족을 직접 골라 ‘미니 크로스백’을 제작하였다.

학부모 교실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학부모 교실이 진행되어 아이의 학교생활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학부모 간의 소통 및 공감대를 통한 교육 공동체 내에서의 소통문화 형성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문화 및 예술을 체험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장문화/기자

‘세계교육 표준! 따뜻한 경북교육을 위한’ 2023 경북 서부권역 교육장협의회 개최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수), 경북 서부권역(상주교육지원청 외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협의회를 상주교육지원청, 낙동강문학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상주박물관 및 경천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의 환영사 및 상주교육에 대한 소개와 함께 협의회장인 김중윤 교육장의 진행으로 경북미래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정보교류와 인구조별 위기에 따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업무 협의 이후에는 낙동강문학관에서 낙동강 변 상주에 핀 문학의 향기를 느끼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받고, 상주박물관에서는 상주의 고대국가 사벌국의 역사를 살펴보고, 상주의 국민관광지 경천대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중윤 교육장은 “삼백의 고장 상주 방문을 환영하고, 오늘 협의회를 통해 각 지역의 모범적인 교육사업들이 공

유되어 서부권역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상주의 문학, 역사, 문화 및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마련된 교육프로그램에도 지역의 교육 가족들이 많이 방문해 주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말을 전했다.

윤근수/기자



청도 화양초, 어르신께 배우는 전통예절교육

화양 동상리 경로회관을 찾아서

청도군 화양초등학교는 지난 4일, 전교자치회 학생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상리 경로회관을 방문하여 ‘어르신께 배우는 전통예절 교육’ 행사를 실시하였다.

화양초등학교는 어르신과 함께 하는 전통예절 교육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고운 심성을 기르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모여 계신 어르신께 청도 향교에서 배운 절을 하고 어르신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였다.

또한 우리 학교 선배이신 4회 졸업생 김재욱회장님께서 우리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이야기 해주셨다. 6학년 최효은 학생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소중한 시간

이었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화양초등학교를 알릴 수 있었으며 우리 학생들을 보고 너무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주 찾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르신들께 준비한 떡과 수박을 드시라고 드리고 오니 뿌듯하였다.

김재욱 교장은 “이번 어르신과 함께 하는 전통예



청송군, 뮤지컬 공연 '써니텐' 개최

윤경희 청송군수, "향후, 군민의 삶 질 향상 위해 다양하고 좋은 공연을 지속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청송군은 2015년부터 대학로에서 사랑받으며 이미 인기가 입증된 연극 '텐-열흘간의 비밀'을 각색한 뮤지컬 <써니텐>을 오는 7월 12일(수) 저녁 7시 30분 청송문화예술회관 무대에서 선보인다.

또한,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 배기성을 포함한 6명의 뮤지션이 '호린 기억 속의 그대', '머피의 법칙', '난 아직 사랑을 몰라' 등 10여 곡의 뮤지컬 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하고 좋은 공연을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온 세상을 물로 적셔라" 장흥물축제 7월 29일 개막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탐진강변, 편백숲 우드랜드서 개최

가장 뜨거운 여름, 시원한 물줄기 속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여름 최고의 축제가 시작된다.

정남진장흥물축제가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9일간 장흥군 탐진강 수변공원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정남진장흥물축제는 장흥의 깨끗한 자연과 건강한 삶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축제다.

올해는 초대형 온비 캐릭터 설치와 멀티미디어 그라운드가 새롭게 선보인다. 서울 석촌 호수에 등장해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러버덕, 벨리곰이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의 브라운 반가사유상처럼 높이 10m의 초대형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멀티미디어 그라운드에서는 16회를 맞은 정남진장흥물축제의 역사와 프로그램 정보를 상영할 예정이다. 다양한 정보 제공 뿐 아니라 물멍 때리기, 사랑의 메시지 보내기, 주제영상 상영 등 다채로운 콘텐츠도 감상할 수 있다.

정남진장흥물축제는 말 그대로 온통 '물' 축제다. 케릴라 부대와 물싸움 공연 퍼레이드를 벌이는 거리퍼레이드 살수대부터 매일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지상최대의 물싸움과 지상최대의 물 풍선 싸움, 그리고 다양한 수상 이벤트까지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나는 축제다.

물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지상 최대의 물싸움은 9일간 색다른 콘셉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 와도 신나게 즐길 수 있다. 사방에서 정신없이 날아오는 물대포와 물 풍선, 그리고 물총이 한 데 어우러져 지상 최대의 물싸움이 펼쳐진다.

장흥물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살수대 점 거리퍼레이드는 물로 하나된다는 의미의 '수국통일(水國統一)'을 주제로 펼쳐진다. 7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장흥군민회관을 출발해 중앙로를 거쳐 축제장인 장흥로 주차장까지 행진한다. 거리 곳곳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고 여기저기서 물 폭탄이 떨어진다. 물을 맞으면 맞을수록 더욱 즐겁고 신나는 특별한 시간이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물세례 때문에 처음엔 주춤한 관광객들도 금방 물에 흥분하며 신나는 물싸움을 벌이게 된다.

7월 30일 일요일부터 8월 6일 일요일까지 매일 오후 3시에는 황금물고기잡기가 열린다. 물속에서 빠르게 헤엄치는 물고기를 잡기 위한 남녀노소 관광객들의 치열한 추격전이 불 만하다. 물고기를 잡으면 잡아서 좋고, 못 잡아도 시원한 물놀이가 된다. 체험 후 잡은 물고기를 손질 해 포장해 갈 수 있다.



이외에도 우든 보트, 바나나보트, 수상 자전거, 카누-카약 등 탐진강을 등성 떠다니며 여름날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갖가지 수중 탈거리들이 준비되어 있다.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상설 물놀이장과 자율 캠핑장 등도 마련되어 있어 가족 나들이로도 좋다.

물축제는 밤이 더욱 뜨겁다. 뜨거운 태양 대신 화려한 조명 아래 신나는 음악까지 더해져 분위기는 한층 더 흥겨워진다. 7월 30, 8월 4일과 5일은 밤 9시부터 물싸움장에서 EDM을 곁들인 신나는 워터풀 파티가 열린다.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는 토코형 콘서트인 별밤 수다(水多)쟁이가 여름밤의 낭만을 더해줄 예정이다.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의 개막 축하 공연과 정남진 강변음악 축제, 방송사 축하공연, 장흥 POP 콘서트 등 볼거리도 다양하다.

김성 장흥군수는 "정남진장흥물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여름 축제다. 올해는 더욱 젊은 축제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장흥물축제에 오셔서 온 가족이 즐거운 추억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2023 부산브랜드페스타!」 개최

단, 3일간의 부산지역 제품 쇼핑 대축제! 부산에 살다, 부산을 사다!

부산시는 지역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부산기독교방송과 함께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3 부산브랜드페스타'를 개최한다.

올해 5회째를 맞는 '부산브랜드페스타'는 지역 중·소상공인 우수제품을 알리고 판매, 제품 인지도를 높이고, 다양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대규모 소비 축제 행사로 지역의 숨겨진 보석 기업들을 발굴, 부산시민들에게 소개, 기업과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행사 후원은 사회가치경영을 활발히 추진 중인 한국남부발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비엔케이부산은행 참여, 기업 살리기에 힘을 모은다.

행사의 개막식은 7월 오후 2시,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내빈 10여 명이 참석해 축사, 커팅식등으로 개막을 축하하고 행사장을 순회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40여개 다양한 부산 대표기업이 참여, 부산 우수한 제품 구매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시민 이벤트도 진행한다. ▲부산 닭갈비집 유가솜씨 ▲90여년 전통 부산 대표 주류 기업 '대선'과 50여년 생막걸리 제조 '생막' ▲부산 '제이앤솔루션' 백화점 ▲'송정동화도그' 등 전통과 이야기가 있는 부산의 맛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광안리 대표 주류판매점 '아울앤푸시켓' ▲전통주 판매점 '이유있는술집' ▲혼술족과 '부산수제

맥주 공동관', '수제막걸리' ▲커피도시 부산 대표 고품질 커피업체 ▲부산지역 우수 제품 판매점 '동백상회' 공동관 ▲부산 관광 기념품 판매 '부산관광기념품 10선' ▲부산시 사회적기업 공동관도 구성된다.

이외 '식품·디저트', '뷰티·패션', '건강', '생활(리빙)·인테리어', '레저·관광', '기술·서비스' 분야 제품과 기술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베틀시장(플리마켓)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폭

넓은 할인판매뿐 아니라 부스별 이벤트와 경품이벤트, 체험행사,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 등 볼거리

와 즐길거리가 풍성하게 준비돼 가족·친구·지인과 함께 방문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한편,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소담스퀘어'부스는 행사기간중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를 진행, 우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구매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5천원 상당 현금 쿠폰·큰손 감사·생일축하 이벤트 등 풍성한 경품행사가 진행되며, 입장료는 무료로 행사 관련 세부내용은 부산브랜드페스타 홈페이지(www.bbf.sho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올 행사는 제품 홍보·판매에 어려움 겪는 기업에 위해 특별한 사업의 장을 마련, 7일 '대기업·공공기관·중소기업 합동구매 상담회'를 열고, 조달청 공공조달 관련 상담/ 소상공인 법률 상담 지원과 현장 실시간 방송 판매지원을 통해 참여기업의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브랜드페스타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역의 우수 기업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지역기업에 큰 힘이 될 수 있게 하겠다"라며, "많은 시민이 부산브랜드페스타를 방문하여 지역 제품을 애용하는 한편, 더운 여름에 가족과 함께 시원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소비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종진/기자

인천시 서구문화재단, 제27회 서곶 학생 피아노 콩쿠르...14일까지 참가 접수

'차세대 피아니스트를 찾아라'

인천시 서구문화재단이 서구 대표 축제 '제27회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2023' 부대 프로그램으로 '제27회 서곶 학생 피아노 콩쿠르'를 개최한다.

올해로 27회를 맞는 '서곶 학생 피아노 콩쿠르'는 우수한 음악 영재를 발굴하고 육성해 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열고 있다.

이번 콩쿠르는 인천 내 유치원, 초·중·고교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가 접수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콩쿠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예선은 오는 7월 30일, 본선은 8월 12일 정라블루노바홀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대회인 제26회 콩쿠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열린 대회인 만큼 총 113명이 접수했다. 상위 수상자 5인을 대상으로 '피아니스트 한지호의 마스터클래스' 1:1 레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올해 콩쿠르는 인천 서구가 주최하고 서구문화재단이 주관하며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SK인천석유화학,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후원한다.

아울러 이번 대회 대상 수상자는 오는 9월 2일 열리는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의 폐막 무대에 설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서구문화재단 관계자는 "조성진·임운찬을 이을 차세대 피아니스트가 서구에서 탄생하길 바라며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창작자들의 축제... '메이커 페어 서울' 참여할 60개팀 모집

7월 17일까지 서울시립과학관 '메이커 페어 서울'에 참여할 60개 작가팀 참여 모집

창작자들을 위한 세계적인 축제, '메이커 페어(Maker Faire)'가 10월 8일~9일 양일간 서울시립과학관에서 개최된다. 200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마테오에서 시작되어 독일,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45개국 이상, 220개 이상의 도시에서 개최된 바 있다.

서울시는 '메이커 페어 서울(Maker Faire Seoul)'에 참여할 '메이커' 60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7월 17일까지이며, 서울시립과학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발명, 예술,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메이커들의 기발하고 유쾌한 창작물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메이커 페어 서울'에 참여를 원하는 작가들의 신청 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접수기간 내 메일(mfs2023@gmail.com)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립과학관은 10월에 개최하는 '메이커 페어 서울'에서 첨단과학기술을 보유한 전문기업체의 전시부스와 전문가 특강 및 워크숍 등 과 함께 '내 결의 과학'을 주제로 한 다채로

운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과학관만의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립과학관'은 미국 메이커 커뮤니티(Make Community co.)와 '메이커 페어 서울'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2023.5.30.)을 맺었으며, 국내 메이커 문화를 이어가고, 주요 메이커 커뮤니티의 활발한 활동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행사 프로그램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며, 행사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유만선 서울시립과학관장은 "이번 '메이커 페어 서울'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의 시대에 스스로 고안하고 만들어 보는 인간 고유의 창작 문화가 국내에 다시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기발한 아이디어와 유쾌한 창작을 즐기는 메이커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영양 들여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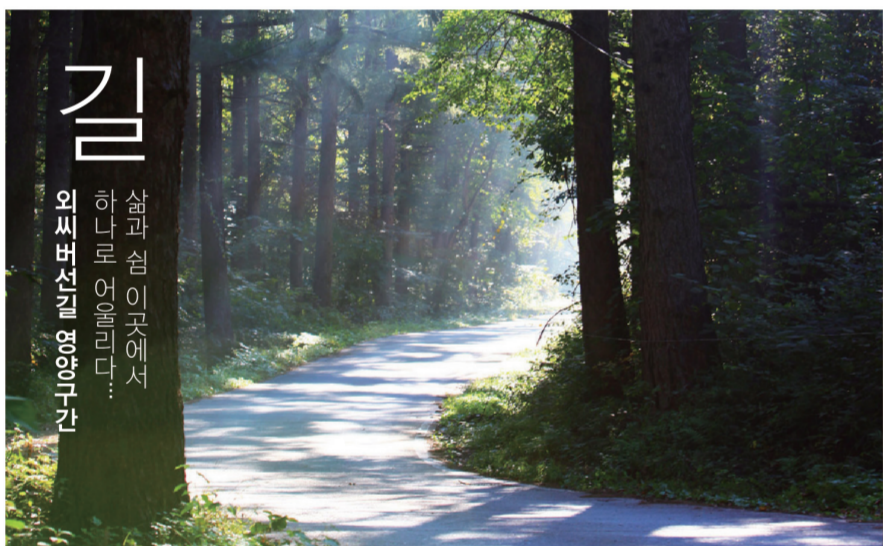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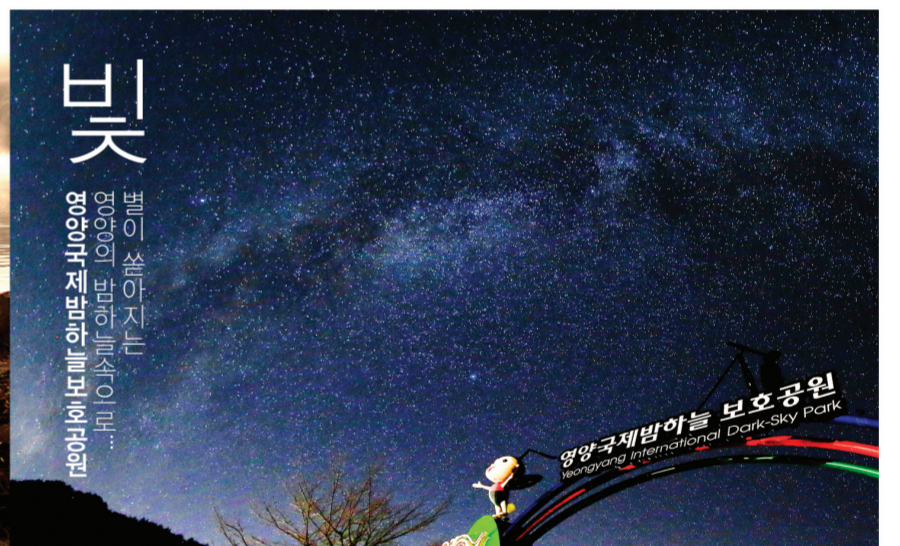
길

살과 숨이 곳에서
하나로 어울린다...
외씨버선길 영양나들이



물

영양의 휘날려
이제다아름답게...
영양고추밭이여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의 밤 하늘을...
영양국제밤하늘보존공원



연

시몬학의 대가
서문포 정호옹 서평의 정호...



맛

사백떡을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포서정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존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